HY ERICA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대표소식지 _ 하이에리카

2020
SUMMER
VOL. 95



ERICA'S KEYWORD

ERICA'S INNOVATION

ERICA'S POWER

HY ERICA

2020 SUMMER
VOL. 95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혼란스러운 2020년 상반기.
학생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해야 할 캠퍼스는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로 허전하게 비어 버렸고,
졸업과 입학식을 비롯한 다양한 학교 행사도
대부분 취소되거나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ERICA인의 열정만은 사그라지지 않았죠.
구성원의 건강을 지키는 선제적인 방역과 통제,
체계적으로 이뤄진 온라인 비대면 강의,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연구 활동까지...
한여름의 태양만큼 뜨거운
ERICA를 만나보세요.
Illustration by **박현영**

ERICA's KEYWORD

Open Your Eyes 04
남다른 이상, 뜨거운 열정으로 빛나는 ERICA

Our Recipe 06
그 무엇도 이길 수 없는 열정의 힘
코로나19, 그리고 ERICA

If You Listen 10
해양생의학 세계전문가 6위, 지치지 않는 열정의 발걸음
해양융합공학과 김세권 석좌교수

First Mover, the Only 14
좋아요! 구독 꾹! ERICA 정보, 이제 유튜브에서 검색하세요
교수학습지원센터 스튜디오(HY-ECTL STUDIO)

발행 2020년 7월 (통권 95호)
발행인 한양대학교 총장 김우승
발행처 한양대학교 ERICA 대외협력팀
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 55
전화 031-400-4474
기획 및 디자인 김형윤편집회사
에디터 김현지
디자이너 장가은



ERICA's INNOVATION

Issue Review I 18
ERICA AI융합연구센터, AI 실용화 선두주자로

Focus Up! ERICA 20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 브리핑 ❶
배움터·일터·삶터의 공존, 혁신성장의 중심 ERICA

Hot Issue 26
바다가 키운 꿈, 미국음향학회 석학회원으로!
해양융합공학과 최지웅 교수

Special Interview 30
건강한 사회는 건강한 커뮤니케이션에서
광고홍보학과 이병관 교수

President's Class 34
김우승 총장 스페셜 지면강의 ❶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학원 교육의 필요성

LINC+ & You 38
아는 만큼 보이는 LINC+사업
현장실습 우수성과 학생 & 친환경건축기술 기업협업센터

ERICA's POWER

Issue Review II 44
가족 3대의 특별한 인연, 우리는 모두 한양인!

Studio Ergo Sum 46
지난 10년의 길이 자랑스러운 전통이 되다
약학대학 약학과

ERICA를 사랑한대 50
뜨거운 태양보다 빛나는 열정으로!

We Are ERICA I 52
학생에서 교수로! 모교로 온 교통 전문가
교통·물류공학과 이건우 교수(교통공학과 96)

We Are ERICA II 56
ERICA 총학생회장 최연소 국회의원이 되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생활스포츠학부 10)

Live Sketch 60
ERICA의 나눔 서포터즈를 아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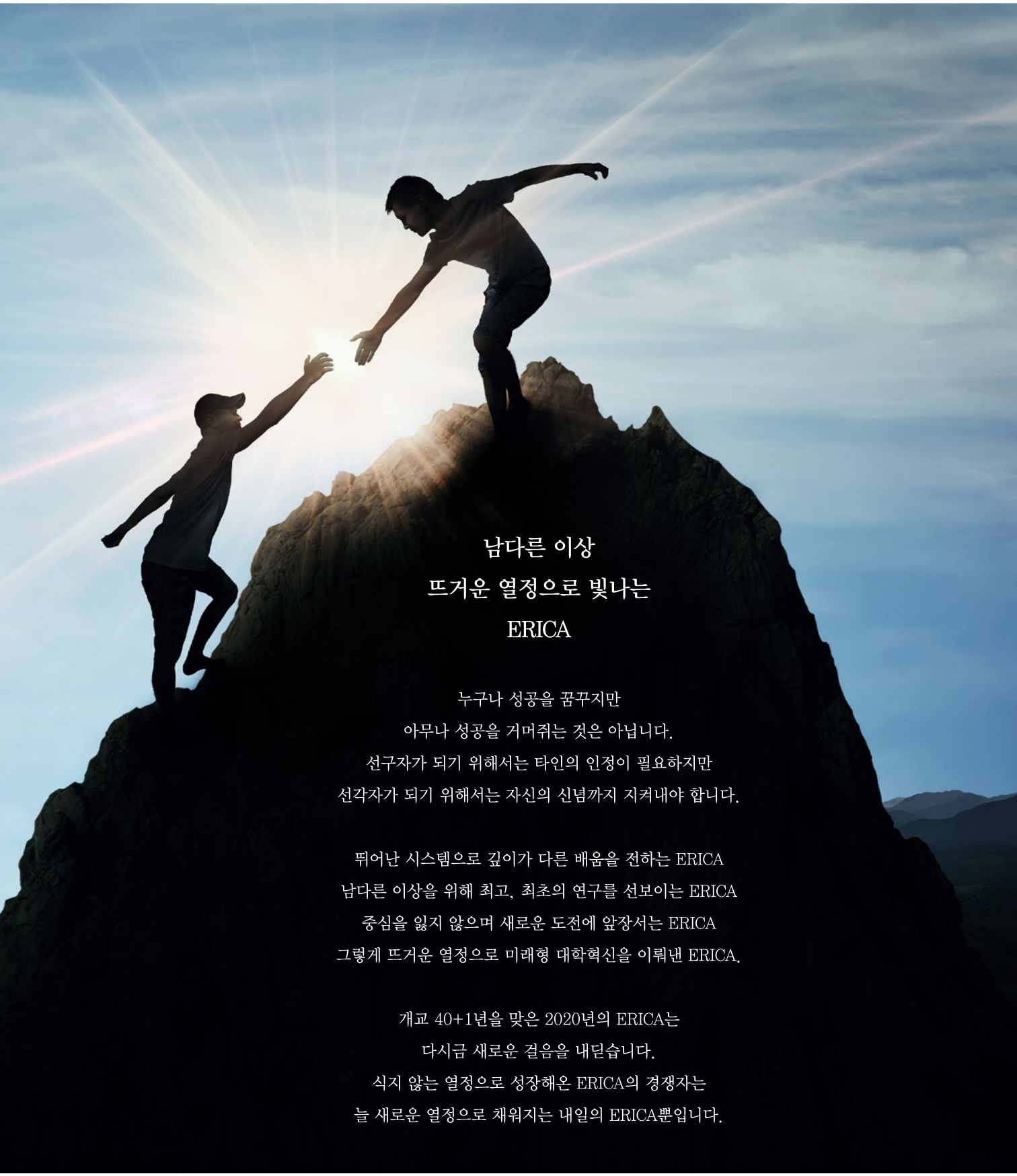
Happy Together 62
바이러스보다 강한 '기부의 힘'

ERICA News 66






ERICA= 열정



남다른 이상
뜨거운 열정으로 빛나는
ERICA

누구나 성공을 꿈꾸지만
아무나 성공을 거머쥐는 것은 아닙니다.
선구자가 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인정이 필요하지만
선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념까지 지켜내야 합니다.

뛰어난 시스템으로 깊이가 다른 배움을 전하는 ERICA
남다른 이상을 위해 최고, 최초의 연구를 선보이는 ERICA
중심을 잃지 않으며 새로운 도전에 앞장서는 ERICA
그렇게 뜨거운 열정으로 미래형 대학혁신을 이뤄낸 ERICA.

개교 40+1년을 맞은 2020년의 ERICA는
다시금 새로운 걸음을 내딛습니다.
식지 않는 열정으로 성장해온 ERICA의 경쟁자는
늘 새로운 열정으로 채워지는 내일의 ERICA뿐입니다.

그 무엇도 이길 수 없는 열정의 힘
코로나19, 그리고 ERICA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전국으로 확산한 코로나19는 일상의 많은 부분을 바꿔놓았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양대학교 역시 예외일 수 없었다. 온라인 개강과 학사일정 변동뿐 아니라,
졸업식과 입학식을 비롯한 주요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위기의 순간을 현명하게 극복해온 ERICA의 모습을 조명한다.

진행 김현지 **사진** 하지권



캠퍼스 곳곳, 빈틈없이 이뤄진 방역과 통제

코로나19는 사람의 침방울을 매개체로 전염되는 감염병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방역과 예방이 중요한 관건이다. ERICA는 코로나19 이슈 발생 직후 양내원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ERICA 감염병 관리위원회'를 출범하고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감염병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총무관리처 관재팀에서는 △교내 방역 △시설통제 △유증상자 선별(건강상태 문진, 체온측정) △위생관리 △감염병 대응 홍보에 나섰다.

"캠퍼스 소독, 건물 출입과 시설 이용 통제, 손 소독제와 마스크 같은 위생용품 수급, 유증상자 선별을 위한 체온계 구입, 교내에 설치된 6대의 열화상 카메라 유지관리 등이 모두 관재팀 소관입니다. 발 빠른 대처로 구성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관재팀 이경태 과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감염 예방을 위해 건물 출입구와 통로, 다중이용 공간 등 캠퍼스 곳곳을 꼼꼼히 방역했다고 설명했다.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버튼이나 출입문 손잡이 등은 하루 네 차례 추가 소독한다. 모든 엘리베이터 버튼에 은나노항균필터를 부착한 것은 덤이다.

"코로나19 확산 당시, 캠퍼스에서 사용할 방역·위생용품 수급이 쉽지 않아 애를 먹었습니다. 기존에 거래하던 안전용품 생산업체에서 대형병원의 방역마스크 선점으로 더 납품할 게 없다고 했을 땐 정말 불안했죠. 방역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발로 뛰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손 소독제조차 구할 수 없었다. 이경태 과장은 직접 소독용 에탄올과 글리세린, 정제수를 배합해 수제 손 소독제를 배포했다. 교내 건물 출입구에 비치할 비접촉식 체온계 구매도 만만치 않아, 관재팀 구성원이 모두 힘을 모았다.

유증상자 선별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ERICA 내 모든 건물에서는 출입 체크를 하고 있다. 교수진과 교직원이 1시간 간격으로 교대 일정을 짜고 건물 출입구에 상주해, 오가는 이의 체온과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 교내 건물에 들어오려면 누구나 문진표 작성과 발열 측정, 손 소독을 마쳐야 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필수다. 이렇게 출입 체크 후엔 요일별 '안심체온 스티커'를 부착해 하루에 여러 번 출입 체크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앴다. 구성원의 안전과 편의를 모두 만족시키는 조치다.

"사스와 메르스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혼란을 지혜롭게 극복하는 중입니다. 정부에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발표했을 때가 마침 벚꽃이 만개하던 시기였어요. 다른 해였다면 벚꽃놀이를 즐겼겠지만, 올해는 강도 높은 출입통제로 모두 아쉬움을 달래야 했죠."

ERICA의 코로나19 대응은?

- **교내 방역** — 캠퍼스 내외 및 다중이용 공간 방역
- **시설통제** — 외부인 교내 출입 통제, 건물 출입구 통제 및 출입자 체크
- **유증상자 선별** — 건강상태 문진, 체온측정, 의료기관 연결
- **위생관리** — 교내 건물마다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배포
- **감염병 대응 홍보** — 코로나19 예방 관련 홍보물 및 현수막 부착, 구성원에 정보 공유

깐깐한 출입 관리로 안전한 ERICA!
교내 모든 건물의 출입구 일원화



Step 1
모든 출입자
마스크 착용 확인



Step 2
연락처 및 건강상태
문진표 작성 의무화



Step 3
비접촉식 체온계로
발열 체크



Step 4
손 소독



Step 5
요일별 '안심체온
스티커' 부착



Step 6
건물 내부 입장

관재팀 황재호 과장은 캠퍼스 내 이동을 제한하며 발생한 재학생, 배달원, 지역 주민의 불만으로 크고 작은 마찰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철저한 출입통제를 위해 교직원들은 주말에도 추가 근무를 섰다. 방역 인력 6명, 환경미화원 70명, 통제 보완근무자 42명 등 방역의 최전선에 선 118명의 현장 작업자들도 매일 구슬땀을 흘렸다. 황재호 과장은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촘촘하게, 유기적으로 코로나19에 대처하고 있다고 전했다. ERICA에서는 아직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1명도 나오지 않았다.

창의인재원, 불확실성 속 외국인 학생 케어까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ERICA 창의인재원 (창의관, 인재관, 행복관)에는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었다. 2,700명 학생을 수용하는 대규모 기숙사로 많은 학생이 모이는 데다, 외국인 학생들의 수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프라인 개강 지연으로 정규 입사 일정도 밀렸지만, 대면 강의 참여나 개인적인 사유로 꼭 기숙사에 머물러야 하는 학생들도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창의인재원은 입사 전과 입사신고 시, 입사 후의 3단계로 나눠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어요. 연속 14일간 '한양대 코로나19 자가체크'를 작성한 학생들만 입사가 가능하고, 이후에도 매일 본인의 체온을 기록해야 합니다."

창의인재원 행정팀 이호복 팀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내부에서의 발병을 막기 위해 열이 있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학생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더불어 별다른 이슈가 없더라도 2주에 한 번씩 꼭 공용 공간에 대한 소독을 진행한다.

"코로나19가 확장세를 보이던 2월 24일부터 3월 24일까지 한 달간, 창의관을 격리동으로 운영했습니다. 이미 입사해 있던 국내외 학생들과 막 입국한 학생들의 거주 공간, 동선을 분리했죠. 격리동 학생들을 모두 1인 1실로 자가격리하고 출입을 통제했어요. 식사도 하루 3번 도시락을 배포, 수거하며 관리했습니다."

행정팀 한승주 씨는 혹시라도 있을 학생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다국어 안내문 비치는 물론 사전, 사후 공지를 철저히 했다고 밝혔다. 도시락 비용도 창의인재원 구내식당에 맞춰 3,500원까지만 자비로 부담하고, 초과 금액 일체는 학교에서 지원했다. 순수 행정 인력 10명을 비롯해 관리 인력, 지도조교 등 창의인재원 구성원 모두가 쉽지 않은 시간을 견뎠다.

"격리동 운영과 함께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가 늦은 시간이나 주말까지 일하곤 했어요.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은 불확실성 속에서 업



무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오프라인 학사 일정이 명확하지 않아 학생들도 입사 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국외로 나가려는 외국인 학생들도 비자나 항공권 문제로 본인이 언제 퇴사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한승주 씨는 가장 기본적인 일정 문제가 확정되지 않아 업무가 지체되고 번복돼 힘들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창의인재원은 학생들의 불편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고를 아끼지 않는다. 신입생 학부모의 걱정 어린 전화마다 친절히 응대하며 유연한 자세로 매주 주말 입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호복 팀장은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 모두가 개인위생에 신경 쓰고, 반드시 학교와 정부 방침을 잘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관련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 졸이기도 합니다. 만약 기숙사 내부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건물을 폐쇄하고 방역할 동안 학생들을 퇴사시켜야 해요. 갈 곳이 마땅치 않은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깐깐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는 코로나19로 캠퍼스 방역과 통제, 비대면 수업의 시간 역시 길어지고 있다. 하지만 ERICA 구성원들은 서로의 노고와 열정 안에서 안전한 일상을 보내고, 질 높은 교육을 공유하는 중이다.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ERICA의 시간은 오늘도 변함이 없다. HY

1 코로나19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기 위해 ERICA 교내에는 6대의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2 ERICA 관재팀은 학교 구성원들의 건강을 위해 철저한 교내 방역을 실시했다.

3 창의인재원은 국내외 학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비상근무체제를 마다하지 않았다.

해양생의학 분야 세계전문가 6위



해양융합공학과
김세권
석좌교수

지치지 않는 열정의 발걸음

김세권 교수는
올해 전 세계 과학기술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33회 국제 크와리즈미(khwarizmi) 시상식에서
'국제과학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미국 의학 분야 논문평가기관으로부터
해양생의학 연구 분야 세계전문가 6위에 선정됐다.
전 세계로부터 전문성과 영향력을 인정받는 김세권 교수.
그의 이야기를 통해 열정이란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진행 김현지 **자료/사진** 김세권 교수

한양대 ERICA 해양융합공학과 석좌교수이십니다. 학생들과 어떤 수업으로 만나시나요?

해양융합공학과는 향후 지구환경 변화의 이해와 보존, 그리고 국가 해양개발 관련 기술의 고도화에 대비해 급변하는 해양환경의 특성을 연구하는 학과입니다. 올해 학과 신입생들에게 2회 특강을 하기로 했습니다. 1차는 '바다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4차 산업혁명으로 돈이 되는 해양생물자원'을 주제로, 2차는 '해양생물자원을 이용한 헬스케어'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해양생물자원으로부터 생리기능성 물질의 탐색 및 개발'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의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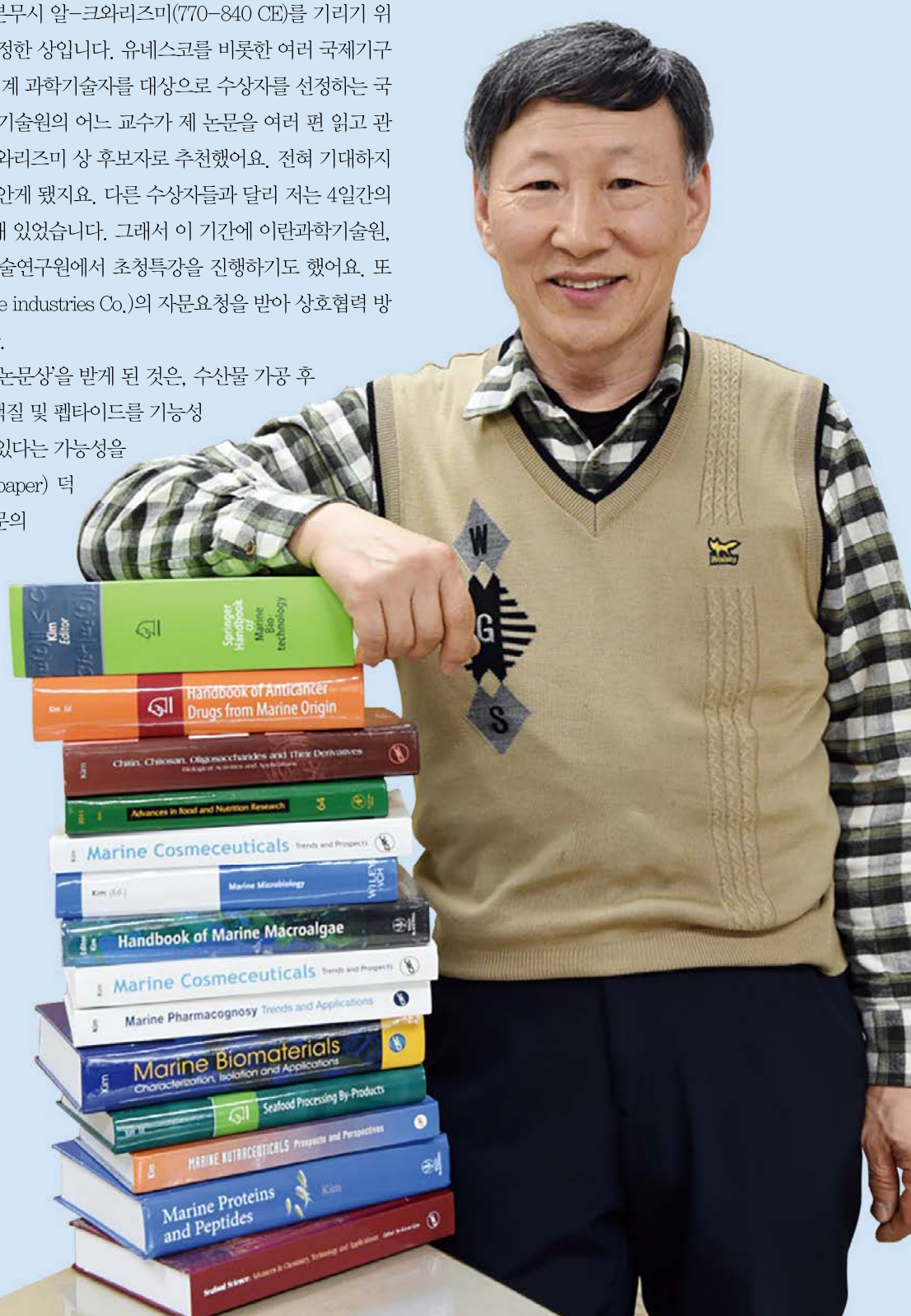
교수님께서는 지난 10년간 SCI급 국제학술지에 해양생물 관련 20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셨습니다. 해양생물과 관련해 어떤 것을 연구해오셨나요?

중국에는 우리나라의 동의보감과 유사한 『중화본초(中華本草, 13권으로 구성)』라는 의약 고서가 있습니다. 이 책은 예부터 중국에서 한약재로 사용된 생물자원 원료, 성상 및 작용을 다루고 있으며 이미 500년 전부터 약 200여 종의 해양생물이 한약재로 활용되었음을 확인해줍니다. 그러나 약용식물 재배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해양생물 활용도가 저조해지면서 현재 해양생물은 단지 10여 종 미만이 이용될 뿐이에요. 저는 『중화본초』에 한약재로 기재됐던 해양생물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양생물과 한약』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한약 재료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하는데, 이들의 농약 오염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해양에 존재하는 미이용 자원인 해양생물로부터 한약 소재(바이오 신약)를 개발하고자 관련 연구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주로 해양생물에서 새로운 천연물질을 분리해 활성을 검토하고, 그 구조를 밝히며, 작용메커니즘을 파악해 활용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그 결과 항암, 항노화, 항알레르기, 항에이즈, 항치매, 항당뇨, 항고혈압 등 다양한 활성을 밝혀낼 수 있었죠.

지난 2월 제33회 국제 크와리즈미 시상식에서 '국제과학상'을 수상하신 데 이어, 해양의약 분야의 세계적 학술지인 『마린 드럭스(Marine Drugs, IF=4.6)』에서 2019 '최우수논문상'을 받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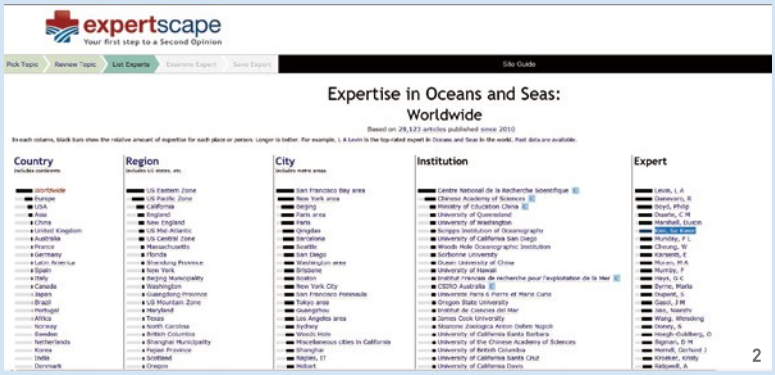
국제 크와리즈미 상은 대수학 개념을 최초로 개척한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인 페르시아 무하마드 이븐무시 알-크와리즈미(770-840 CE)를 기리기 위해 1987년 이란 정부가 제정한 상입니다. 유네스코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의 후원을 통해 매년 전 세계 과학기술자를 대상으로 수상자를 선정하는 국제적인 상이죠. 이란 과학기술원의 어느 교수가 제 논문을 여러 편 읽고 관심을 두게 됐다며 저를 크와리즈미 상 후보자로 추천했어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수상의 기쁨을 안게 됐지요. 다른 수상자들과 달리 저는 4일간의 수상 스케줄이 따로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이란과학기술원, 이란 해양 및 환경 과학기술연구원에서 초청특강을 진행하기도 했어요. 또 기업(SAFF group offshore industries Co.)의 자문요청을 받아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마린 드럭스』에서 '최우수논문상'을 받게 된 것은, 수산물 가공 후 버려지는 가공잔사 중 단백질 및 펩타이드를 기능성 화장품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종설논문(review paper) 덕분입니다. 세계적으로 논문의 인용도가 높아 제가 수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해온 노력과 연구 성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 같아 행복한 마음입니다.





1



2

1, 2 김세권 교수는 올해 제33회 국제 크와리즈미 시상식에서 '국제과학상'을 수상한 데 이어, 미국 의학 분야 논문평가기관으로부터 '해양생의학 연구 분야 세계전문가 6위'로 선정됐다.

해양바이오 분야에 관심을 두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해양에는 지구 전체 동식물의 80%에 해당하는 약 30만 종이 서식하고 있지만, 95% 이상이 미이용 자원입니다. 최근 선진국을 비롯해 바다와 인접한 해양국가들은 바이오 소재 개발 대상을 육상자원에서 미이용자원인 해양생물로 이전하는 추세입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육지 면적의 4.5배에 달하는 해양관할권을 보유하고 있고 비교적 해양생물자원이 풍부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40여 년 전, 제가 연구를 시작할 때만 해도 생선과 해조류(미역, 김, 다시마) 등 극히 일부만이 식량자원으로 이용될 뿐 해양생물자원 대부분이 미이용 자원이었습니다. 해양생물에 대한 기초 연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죠.

그래서 '해양생화학연구실'을 만들고 해양생물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해양생물자원을 통해 수없이 새로운 기능성 물질을 탐색하고 그 기능성을 밝혀왔어요. 해양생물자원을 다방면으로 활용하려면 연구가 선행돼야 합니다. 생명공학기법(biotechnology)을 이용한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라, 이를 극복하고자 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꾸준히 연구를 수행해왔습니다.

글로벌 학술정보 기업이 발표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세계 1% 과학자'로 5년 연속 선정됐고, 지난 3월에는 미국 의학 분야 논문평가기관으로부터 '해양생의학 연구 분야 세계전문가 6위(Top 0.0075%)'로 꼽히셨습니다.

학자의 의무 세 가지를 항상 마음 깊이 새기며 교수 생활을 해왔습니다. 첫째, 학생을 잘 가르쳐야 하고 둘째, 창의적인 연구를 수행해야 하며 셋째, 연구결과가 인류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까지 스스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능력이 부족하므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요. 늘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몰입하다 보니 좋은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영어로 써진 해양바이오 관련 전문서적 40여 권을 출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9년 캐나다에 있는 메모리얼대학(Memorial University)에 객원교수로 있을 당시, 편집자로서 60여 권 이상의 책을 출간하고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한 교수를 알게 됐습니다. 제 연구 분야에 관해 공동편집자로 책을 출간할 것을 제의했는데, 아쉽게도 성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심 끝에 혼자서 출간해봐야겠다 마음 먹었죠. 다행히 해외출판사에서 여러 번 출판계획서를 심사한 경험이 있어, 출판계획서를 미국의 유명 출판사인 씨알씨 프레스(CRC press)에 냈고 첫 영문 전문서적을 출간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자신감이 생겼고, 여러 출판사에

서 출간 요청을 받아 어느새 40권 이상을 출간하게 됐지요.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연구와 논문 발표, 전문서적 출간까지 매진해오셨습니다. 교수님만의 특별한 비결이 있으신가요?

항상 능력이 부족함을 생각하며 누구보다도 노력하고 몰입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는 일에 자신감이 생기고, 무엇이든 용기 있게 시도하려는 자세를 갖추게 됐어요. 사실 국내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이 영문 전문서적을 발간하는 데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해냈죠. 세상일에 특별한 비결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해양융합공학, 해양바이오 분야가 미래 사회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까요?

앞으로 바다 환경을 관리하고 해양자원을 보호하며 이것을 인류에게 가치 있게 활용하려면 종합 과학적 접근이 필요해요. 때문에 해양융합공학은 앞으로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또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해양생물자원을 활용하는 해양바이오산업 등이 국가의 신동력 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 기대됩니다.

ERICA 구성원과 후배 연구자들에게 '열정'에 대해 조언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어느 작가가 제시한, 현대인이 갖춰야 할 행복의 4가지 조건이 생각납니다. 첫째는 어학 공부, 둘째는 전문지식 쌓기, 셋째는 악기 다루기, 넷째는 스포츠 즐기기였죠. 이 행복의 조건 4가지를 찬찬히 살펴보면 모두 고통과 열정 없이는 얻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no pain, no gain(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의 교훈이죠. 공부하고 연구하고 일하고, 무언가에 답을 얻기까지 고통스러울 때도 있겠지만, 열정을 가지고 자신이 하는 일에 집중한다면 행복을 느끼는 시간이 더 빨리 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기술혁신형 기업에서 다양한 성장의 기회가 열릴 겁니다. 기술혁신에는 창의적인 연구개발이 필수입니다. 그러니 창의적인 연구수행 능력 배양에 정열을 쏟아야 해요. 그것만이 취업이나 창업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HY

세상에는 고통 없이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공부와 연구, 업무 등 무언가에 답을 얻기까지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열정을 가지고 집중한다면 언젠가 좋은 결실을 보게 될 겁니다.

김세권 석좌교수와 '해양생의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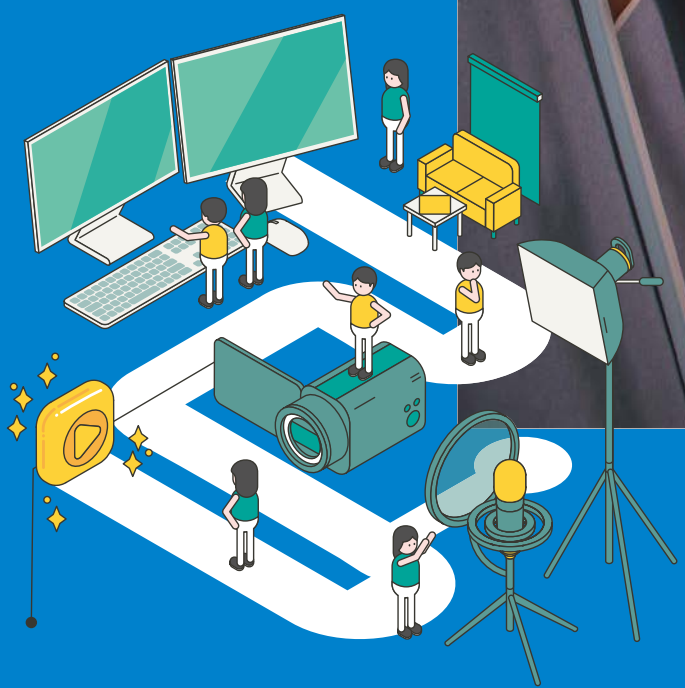
해양생의학은 해양생물자원으로부터 얻은 생리기능성 물질의 의학적 활용 가능성을 탐구하는 분야다.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해양생의학 분야 전문가인 김세권 교수는 항암, 항노화, 항치매, 항비만, 항당뇨 등 해양생물자원의 다양한 효과를 밝히는 연구를 이어왔다. 최근 해양의약 분야의 세계적 학술지 『마린 드럭스』로부터 2019 최우수논문상을 받기도 했다.



좋아요!
구독 꾹!
ERICA 정보,
이제 유튜브에서
검색하세요



교수학습지원센터 스튜디오
(HY-ECTL STUDIO)



'학생증 발급은 어떻게?', '도서관은 어디?'
이제 각종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 유튜브에 접속하는 시대이다.
이러한 시대 흐름에 발맞춰 지난 2월 교수학습지원센터가
ERICA 공식 영상 채널을 운영하기 위한 스튜디오를 열었다.
그리고 문을 열기 무섭게 신입생들을 위한 학교 이용 팁을 알리는 영상을 제작해 업로드했다.

글 박영임 **사진** 하지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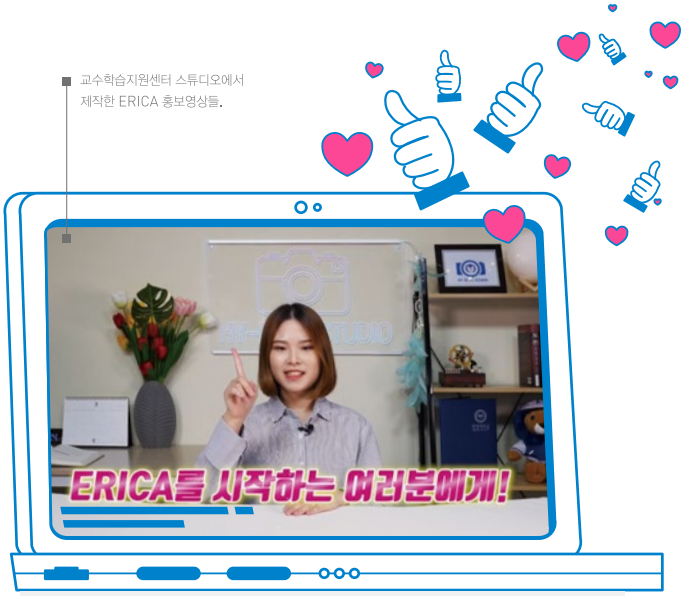
유튜브로 학교 이용 꿀팁 대방출

코로나19로 신입생 관련 행사는 물론 입학식까지 취소됐던 지난 3월, 유튜브에 'ERICA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고대하던 첫 학기를 맞았건만 대면 수업이 연기되는 바람에 학교에 대한 정보를 구할 길이 막막해진 신입생들. 그들을 위해 교수학습지원센터 스튜디오가 구세주로 나선 것이다. 오락과 정보를 넘어 밀레니얼 세대의 어엿한 검색 채널로 자리 잡은 유튜브로 학교 관련 정보를 전달하기로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선택이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에 개설한 교수학습지원센터 스튜디오는 문을 열자마자 관련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느라 숨 가쁜 나날을 보냈다.

"기존에 행사 영상을 제작해왔기 때문에 영상장비 대부분은 ERICA 내에서 최고 수준으로 갖추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학생들을 선발하고 콘텐츠를 제작했죠. 등교하지 못하는 신입생들을 위해 신속히 정보를 제공해야 하니까요."

교수학습지원센터 서동호 센터장의 말이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사태가 내내 구상만 하던 스튜디오 개설의 고삐를 당긴 셈이었다. 그동안 교수학습지원센터는 어떻게 하면 ERICA를 더욱 많은 이들에게 알릴 수 있을지 고민하던 차였다. 그러다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하자 이제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움직여야 할 때라며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이다.

교수학습지원센터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ERICA 홍보영상들.



1 [HY-ECTL STUDIO] 'ERICA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1st 시설편 #셔틀버스 #자전거 대여 #은행
Hanyang University 한양대학교 ERICA

2 [HY-ECTL STUDIO] 'ERICA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2nd 학교기구편 #학생증 발급은 어디서? #수강신청 문의는? #취업 상담은?
Hanyang University 한양대학교 ERICA

3 한양대학교 ERICA Blackboard Q&A
Hanyang University 한양대학교 ERICA

4 [HY-ECTL STUDIO] 'ERICA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3rd 꿀 정보편 #도서관은 어디? #강의실에 카페가? #창업을 지원해 주는 곳?
Hanyang University 한양대학교 ERICA

5 아름다운 한양대학교 ERICA 8경 Teaser 영상
Hanyang University 한양대학교 ERICA

6 [HY-ECTL STUDIO]"한양대학교 ERICA 8경 들어봤어?" 1st
Hanyang University 한양대학교 ERICA

7 HY ECTL STUDIO한양대학교 ERICA 8경 들어봤어 2nd
Hanyang University 한양대학교 ERICA

8 2020 한양대학교 ERICA 대면시험 대비 행동수칙
Hanyang University 한양대학교 ERICA

"그간 ERICA는 괄목상대(刮目相對)할 정도로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외부인은 물론 내부적으로도 학교에 대해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교수학습지원센터 스튜디오는 ERICA 가족에게는 공감대를 심어주고, ERICA를 잘 알지 못하는 외부인들에게는 학교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소통의 장이 되고자 합니다."

학교 홍보 영상, 재미도 있어야죠

세상의 모든 정보가 유튜브로 모이고 있는 만큼, 그 많은 영상 중 시청자들의 시선을 머물게 하려면 정보성뿐 아니라 재미 요소도 갖춰야 한다.
"상위 26개 대학의 유튜브를 매일같이 모니터링한 결과 재미가 없으면 잘 보지 않게 되더군요. 그래서 한 영상당 10분을 넘기지 않으며, 자연스럽고 경쾌한 분위기로 연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타 대학들의 공식 영상 채널과 달리 제작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공신력을 높이고 수준 높은 영상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전문직원이 투입되긴 하지만, 고루한 형식으로는 타깃층의 눈높이를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ERICA에 관심을 두고 영상을 찾아보는 주 시청자층은 10~20대입니다. 아울러 대학은 학생들의 생동감 넘치는 젊음으로 상징되는 곳입니다. 시청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젊음의 열기가 생생하게 전달되도록 학생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아이디어는 학생들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활동하는 4명의 1기 기자단은 2019년 사랑한대 홍보대사 및 영상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 중에서 선발됐다. 학기별로 운영할 방침이라 2기 기자단도 모집하는 중이다. 기자단 학생들은 ERICA를 홍보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부심이 크다. 고지수 학생(미디어

테크놀로지 전공 18)은 "코로나19로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신입생들을 위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뿌듯하다"며 "학교를 홍보하는 것이라 책임감이 크지만, 유튜브로 전달해 재미있다"고 말했다.
기자단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아이템 기획뿐 아니라 촬영과 편집에 이르는 제작 전 과정에 참여하고 직접 출연까지 한다. 그래서 촬영이나 편집 교육 및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보이스 트레이닝도 받고 있다. 박재영 학생(경영학부 15)은 "요즘 유튜버가 대세인데 촬영이나 편집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주연 학생(미디어 테크놀로지 전공 18)은 "처음 카메라 앞에 설 때는 긴장이 돼 NG를 많이 냈는데 주변에서 알아봐 주는 사람들이 있어 보람이 크다"고 말했다.
이렇게 제작된 콘텐츠들은 유튜브를 비롯해 '채널H'와 교수학습지원센터 내 미디어 콘텐츠 제작 공유 시스템인 'HCMS'를 통해 만날 수 있다.

가즈아! 10만 구독

지난 4월 벚꽃이 만발할 무렵, 교수학습지원센터 스튜디오로부터 ERICA를 알리는 두 번째 시리즈인 'ERICA 8경'이 전해졌다. 이는 벚꽃길을 비롯해 아고라, 라이온스 레이크, 백로봉 등 제목 그대로 ERICA의 8가지 아름다운 절경을 소개하는 영상이다. 영상이 올라오자 '이렇게 예쁜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이 큰 기쁨이다', '그립다'라는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댓글이 달렸다.
이어서 준비하는 영상은 ERICA 입학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정시전형, 종합전형, 교과전형 등 유형별 입학전형 정보, 입학사정관 및 합격자 인터뷰까지 곁들일 계획인데 이를 준비하느라 기획회의가 한창이다. 앞으로 또 어떤 콘텐츠들이 만들어질까. "기회가 되면 신입생을 위한 학교 앞 맛집 소개 같은 대학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콘텐츠도 제작하고 싶다"고 말하는 한유리 학생(화학분자공학과 18). ERICA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싶다면 지금 당장 구독하기를 클릭하자. HY



여타 대학의 공식 영상 채널과 달리 ERICA 재학생들이 직접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

Mini Interview

교수학습지원센터
서동호 센터장



높아진 ERICA 위상, 이제 널리 알려야죠

"앞으로 2주에 한 번 이상은 새 영상을 업로드할 계획입니다. 교수학습지원센터 스튜디오는 촬영 장비인 캠코더 3대, DSLR 1대, 미러리스 2대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 짐벌, 프롬프터 같은 다양한 보조장비와 헬리캠 장비인 드론까지 갖추고 있어 다양한 콘텐츠들을 무리 없이 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튜디오는 추가로 더 개설할 계획입니다.
ERICA의 높아진 위상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 아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ERICA를 널리 알리는 것이 교수학습지원센터 스튜디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10만 구독자를 목표로 유익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제작해, 한양 가족들이 서로 즐기며 소통하는 장을 만들겠습니다."

ERICA AI융합연구센터로 AI 실용화 선두주자로!

ERICA AI융합연구센터사업 선정

인공지능(AI)이 국가의 커다란 이슈가 되리라 판단한 정부는 지난해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발표하고 인공지능 분야의 석·박사급 고급인재 양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분야 인재양성의 거점이 될 AI대학원(고급·전문트랙)과 AI융합연구센터(융합트랙) 사업을 추진 중이다. ERICA는 올해 'AI융합연구센터'로 선정됐다.

ERICA AI 실용화 선두주자 되다

AI융합연구센터 사업 선정으로 ERICA는 AI 분야 선진 대학으로 나아가는 데 큰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아직 대한민국은 AI 분야에서 선진국 반열에 오르지 못했다.
AI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발 빠른 인재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RICA가 이번 사업에 선정된 것은 AI 실용화에 선두주자가 될 기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첫해 11억 원,
이듬해부터 15억 원씩 3년간 지원

ERICA는 학교의 강점인 의료·의약 분야와 지역 특화산업을 연계한
산학협력, 공동연구 등을 통해 연간 40명 이상의 AI 융합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정부의 집중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첫해 11억 원, 이듬해부터 15억 원씩 3년간 지원금을 받는다.
AI 연구를 위해서는 먼저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
ERICA는 Bio Informatics(생물정보학), Medical Informatics(의료정보학),
Pharmacy Informatics(약학정보학)의 세 가지 체계를 기반으로 총 21명의 교수진으로 팀을 이뤘다.
다양한 분야의 교수진이 힘을 모으기에 '융합'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센터 소속 학생들에게는 박사과정 100만 원, 석사과정 60만 원 수준의 장학금 혜택이 주어진다.
다양한 분야 전공 교수진의 지도를 통해 융합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다. HY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 브리핑 ❶

배움터·일터·삶터의 공존
혁신성장의 중심 ERICA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와 그것을 이루려는 열망이 필요하다. 학연산 클러스터 활성화로 뚜렷한 족적을 남기며 쉼 없이 발전을 거듭해온 한양대학교 ERICA는 지난해 8월, 1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에 선정됐다. ERICA는 사업 선정과 함께 어떤 변화를 맞고 있을까?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2회에 걸쳐 풀어본다.

글 김현지 **자료** 캠퍼스혁신파크사업단 **사진** 하지권


ERICA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의 최신 조감도.

2회 연재로 알아보는 ERICA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

1회(Vol.95)
'혁신성장의 중심 ERICA'를 테마로 사업개요와 선정과정, 기대효과, 2020년 상반기 추진상황에 대해 알아봅니다.

2회(Vol.96)
'ERICA의 미래'를 테마로 양내원 부총장 및 입주예정기업 관계자들 인터뷰, 2020년 하반기 추진상황에 대해 알아봅니다.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이란 대체 뭘까?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은 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대학의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함으로써 산학연 협력을 고도화하고, 입지가 우수한 지역에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도시첨단산업단지 내에 기업입주 시설, 창업지원 시설, 복지·편의 시설 등을 복합 개발하고, 입주기업에는 각종 세제 혜택과 지자체 및 대학의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또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 유치 등 창업지원과 대학기술사업화 펀드 등도 연계 지원될 계획이다. 정부의 산학연 협력사업, 기업역량 강화사업 등을 집중해 대학을 지역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게 이번 사업의 핵심이다. 3개 부처는 2019년 선도사업 대상 선정 이후, 본격적으로 해당 사업을 확대해나간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 추진 일정

2019년 선도사업 대상 선정 & 도시첨단산업단지 계획수립

2020년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 착공

▼

2022년
도시첨단산업단지 1단계 준공

▼

2030년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완료

도시첨단산업단지 주요 구성과 역할



성장 창업존
- 창업자(학교 기업 등)에 저렴한 임대공간 제공(시세의 약 20% 수준)
- 아이디어 사업화, R&D 지원 등 창업보육 지원



기업 활동존
- 창업 후 성장기업(Post BI) 등에 임대공간 제공
- 산학협력 활성화, 정책자금, 판로, 수출지원 등 지원



복지·편의·주거존
- 창업지원 주택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지원
- 문화·복지·체육시설 등 복합설치로 일과 삶의 조화

선도사업 대상, 어떻게 선정됐을까?

지난해 6월 3개 부처가 사업공모 설명회를 열고, 서울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다. 이에 총 32개 대학이 참여의사를 밝히고 제안서를 제출했다. 3개 부처는 산업입지, 산학협력, 창업 및 기업육성 등 각 분야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심사에 들어갔다.

심사는 발표평가와 현장실사, 종합평가의 3단계로 진행됐다. 평가위원회는 32개 대학 중 발표평가(8월 12~16일)를 통해 9개 대학을 우선 선정했다. 이후 현장실사(8월 22~23일)를 통해 캠퍼스의 실제 상황과 주변 여건 등을 확인했다. 마지막 종합평가까지 마친 8월 28일, ERICA를 비롯해 강원대학교와 한남대학교 3개 대학이 최종 대상지로 결정됐다. 1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뚫은 만큼, 최종 선정된 3개 대학은 모두 높은 수준의 개발 타당성과 산학연 협력 역량, 주거·교통 여건이 우수한 입지 조건 등을 두루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다.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 평가 기준]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타당성 | 대학의 사업추진 역량과 의지 |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 기관의 참여 가능성 | 선도사업의 조기 활성화 가능성 | 지자체의 행·재정적 사업지원 의지

선도사업에 선정된 ERICA의 힘은?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와 인접한 ERICA는 개교 이래 오랜 시간 산학연 협력 노하우를 축적해왔다. 산학협력을 염두에 둔 IC-PBL 수업을 국내 대학 중 최초로 도입했으며, 그 어느 대학보다 창업보육센터가 활성화돼 있다. 2003년부터는 대학 내 10만 평 부지에 '학연산 클러스터' 인프라를 구축했다. 현재 △LG이노텍 부품소재연구소 △한국전기연구원(KERI)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경기테크노파크(GTP)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등 다양한 국책·연구기관이 입주해 있다.

더불어 안산사이언스밸리(ASV)의 중심이자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교육부)' 주관기관, '강소연구개발특구(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핵심기관으로서 대학-기업-연구를 잇는 국가발전에 앞장서는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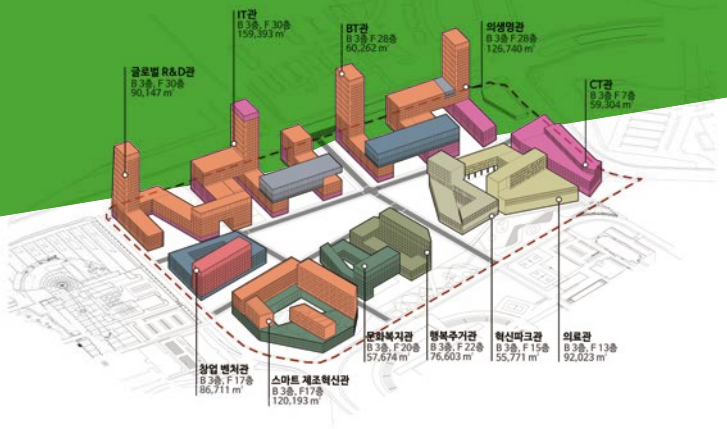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이 대학과 기업을 연결해 새로운 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개발하는 것인 만큼, 사업의 모든 요건을 완벽히 갖춘 학교는 단연코 ERICA였다.

여기에 더해 ERICA는 수도권과 가까운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하는 데다 고잔(40만 세대)·송산(25만 세대) 신도시 등과 가까워 주거 및 생활편의 면에서도 우수하다. 또한 지하철 4호선과 KTX 광명역, 2024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복선전철(한양대 ERICA 역) 등 초역세권이라는 교통 여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 기대효과는?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캠퍼스 혁신파크에서 청년은 취업과 창업 기회를 잡고, 기업은 대학이 가진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으며, 대학은 일자리 창출과 기업을 성장시키는 혁신공간으로 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선도사업을 통해 대학이 지역 경제의 활력소가 되도록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성공모델을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전 세계적으로도 과학기술단지(science & technology park)가 대학 캠퍼스 내 부지에 자리한 비중은 19.5%에 이른다. 따라서 이번 사업은 지역 산업생태계의 혁신 모델이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학연 협력 모델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에는 약 1조5천억 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진다. 이를 통해 5조9천억 원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와 1조8천억 원의 부가가치유발 효과, 3만6천 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예상된다.

이번 사업은 청년층이 선호하는 첨단산업(IT·BT·CT 등 신산업) 일자리(개소당 1,300개)를 늘리고, 기존 산업단지의 열악한 정주 환경을 극복할 해결책이다. 청년의 취업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이다. 또 촘촘한 산학연 협력 프로세스를 통해 창업 후 성장(Post-BI) 기업의 생존율까지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ERICA Innovation Park Q&A

캠퍼스혁신파크사업단
원호식 단장

ERICA가 만들 캠퍼스 혁신파크는 어떤 모습인가요?

이번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ERICA 내 서쪽 나대지에 총면적 18만6,848㎡(5.6만 평)에 달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됐습니다. 대학 혁신역량과 연계한 배움터이자 일터, 삶터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혁신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터전이 될 전망이에요. 유치기업 1천 개, 고용인원 1만 명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사업명은 'ERICA Innovation Park (EIP)'입니다.

ERICA 혁신파크는 IT와 연계된 창업기업 및 첨단부품소재, 스마트제조혁신 기업유치를 위한 시설, 바이오생명공학 R&D 시설 등 IT와 바이오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때문에 단지는 글로벌 R&D 시설과 혁신파크 지원 시설, 바이오생명공학 R&D 시설의 3개 구획으로 구분돼 조성됩니다. 사업은 1, 2단계로 나뉘어 추진되는데, 1단계 사업으로 7만9,219㎡(2.4만 평) 부지 위에 2022년까지 글로벌 R&D 시설과 혁신파크지원 시설 4개 동을 신축할 예정이에요. 건물 연면적은 45만6,446㎡이고, 이 1단계 사업비는 6,900억 원에 달합니다.

ERICA 혁신파크는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나요?

2019년 8월 말 사업 대상자가 선정되고, 학교는 2022년 하반기에 사업 1단계를 완료한다는 사업시행 계획에 맞춰 바쁘게 움직여왔습니다. 아직은 밑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단지 설계 후 지난 4월에 도시첨단산업단지 1단계 부분에 대한 허가가 났고, 9~10월에 인허가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인허가 완료 이후에는 입주를 원하는 기업들과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실제 공사에 들어가는 것은 연말이나 내년 초가 될 전망이에요. 단지 내에 정부와 경기도, 안산시가 476억 원을 투입한 기업지원





ERICA의 캠퍼스 부지 활용 마스터플랜▶

시설로 혁신허브건물(건물면적 22,300㎡, 6,750평)이 지어질 예정입니다. 12월까지 설계와 인허가를 완료하고 늦어도 내년 초에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죠.

ERICA 혁신파크와 시너지 효과를 낼 신안산선은 이미 지난해 9월 9일 첫 삽을 떴습니다. 올해 말에 '한양대 ERICA 역'을 착공하고, 2024년도 상반기에는 여의도까지 30분 정도 소요되는 신안산선이 완공될 예정입니다.

지난해까지는 부총장님과 각 단장, 처장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사업의 주체로 움직였어요. 올해 1월에는 본격적인 사업 수행에 앞서 캠퍼스혁신파크사업단이 출범했습니다. 아직은 조직을 구성하는 중입니다.

ERICA 혁신파크가 큰 사업이다 보니, 각종 인허가 프로세스와 단지 설계, 개발 및 입주업체 모집이 무척 중요합니다. 꾸준히 여러 전문가의 자문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현재 이를 지원할 프로젝트 매니저와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특임교수를 모신 상태입니다.

Q. 올해 하반기에 입주기업을 결정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입주수요는 많은가요?

지금까지 입주의향서를 미리 낸 기업은 90여 개 정도에요. 기업입주가 단지 인허가가 끝난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각 단과대 교수님들에게도 같이 움직일 기업체를 추천받을 예정입니다. 안산시 관계 기업을 분석한 결과, ERICA 내 창업기업을 비롯해 기존의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와 시화 MTV, 경기테크노파크, 서해안 산업벨트, 경기남부 R&D벨트로부터 IT, BT, CT 등 첨단산업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숫자로 따지자면 2,044개 기업에 이릅니다. 자연스럽게 다른 기업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앵커테넌트(anchor tenant) 기업 유치에도 신경 쓰고 있어요.

아직 사업이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ERICA 혁신파크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ERICA 구성원이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HY

바다가 키운 꿈

미국음향학회 석학회원으로!

해양융합공학과 최지웅 교수



해양융합공학과 최지웅 교수가 미국음향학회의 석학회원으로 선정됐다. 권위 있는 국제학회의 석학회원으로 선정됐다는 것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연구력을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다에서 자라난 최 교수는 수중음향학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근간 기술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글 박영임 **사진** 하지권

연구는 사회에 이바지하는 것

지난 5월, 최지웅 교수는 미국음향학회로부터 기쁜 소식을 전해 받았다. 바로 미국음향학회 회원의 최고등급인 석학회원으로 선정된 것. 미국음향학회는 최 교수가 몸담은 수중음향학을 비롯해 건축음향학, 의학음향학, 구조(진동)음향학, 음성인식 등을 총망라하는 대형학회다. 음향학을 선도하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회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7,500여 명이 넘는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미국음향학회 석학회원은 1929년 학회 설립 이래 지난 90여 년간 550여 명밖에 누리지 못한 영예다. 한국에서는 최 교수가 5번째 선정이다.

"그동안 음향학의 발전을 위해 애써온 결과를 인정받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석학이라는 무게가 무겁기도 하고요. 앞으로 석학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양질의 논문을 쓰려면 더욱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쁘기도 하지만 책임도 막중하다고 말하는 최지웅 교수. 사실 석학회원이 되려면 개인 업적, 기술성취 실적 등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석학이라는 지위는 단순히 연구 실적이나 논문 발표 수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학자의 면면을 갖춰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명예다. 최 교수의 경우 음향학 발전을 위한 국제적



활동과 사회 기여도 등을 두루 인정받아 석학회원으로 선정됐다.

최지웅 교수는 2011년 태평양지역 수중음향학술대회를 국내에 유치해 제주도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서태평양지역 음향학회의 사무총장을 거쳐 현재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그리고 방위사업청 방산기술보호 자문위원, 해양수산부 해양이용영향검토 자문위원, 해군발전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교육, 강연과 같은 재능기부 활동도 활발히 펼치는 중이다. 연구활동도 사회적 기여도를 중시하는데, 이러한 생각은 최 교수의 해양음향공학연구실을 소개하는 홈페이지의 첫 문구만 봐도 알 수 있다.

"연구실 홈페이지 맨 앞에 '국가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목표로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국가 재정으로 연구하기 때문에 허투루 국민 혈세를 낭비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늘 우리의 연구비는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와 산업체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파, 미지의 영역 해저를 탐색하다

최지웅 교수의 연구 분야인 수중음향학은 수중에서 음파를 이용해 해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루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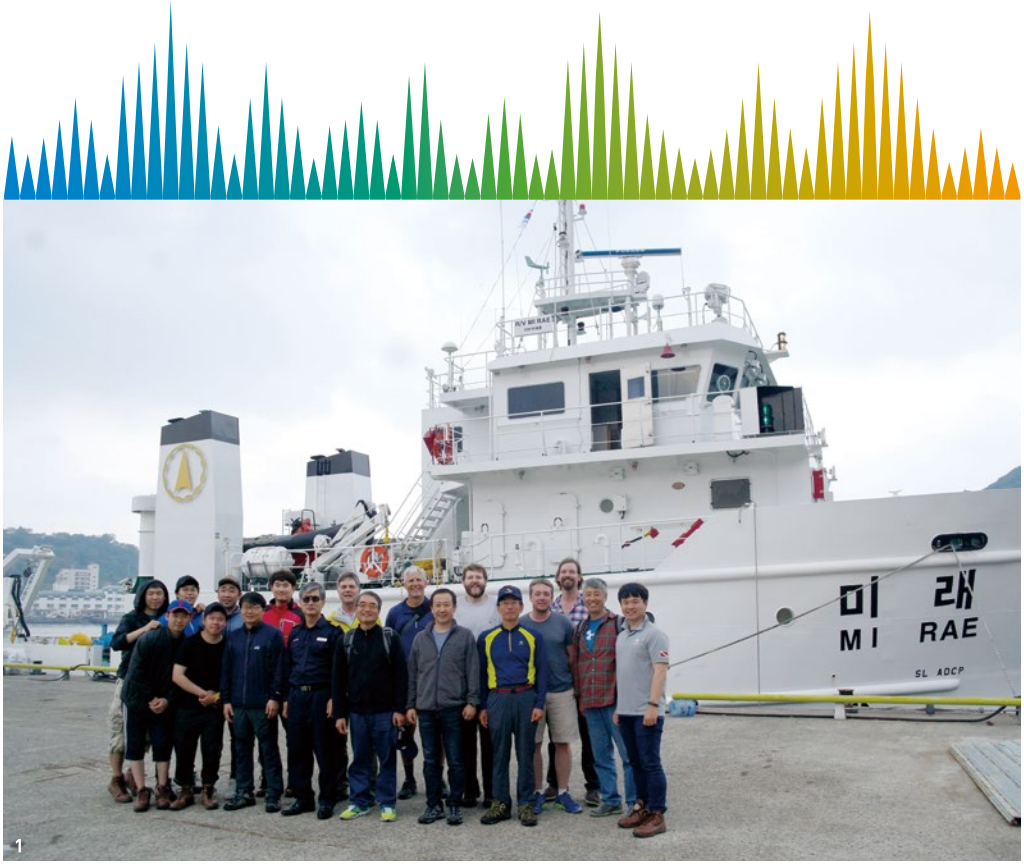
학문이다. 예를 들어 국방 분야에서는 수중무기 유도, 원격탐지 및 식별, 수중통신, 산업 분야에서는 해양환경 모니터링, 해저지형 탐사, 해양생물 모니터링, 수중 소음 조사 등에 활용될 수 있다.

"21세기에도 인간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유일한 두 곳이 있는데 바로 우주와 바닷속이죠. 앞으로 인간이 살아남으려면 우주와 바다를 연구해야 합니다. 특히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바닷속 해양자원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주나 해저 모두 인간의 접근을 쉽게 허용하지 않는 곳이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첨단과학기술을 통해 간접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있다. 우주나 육상에서는 전파를 이용하여 물체를 탐지하고 정보를 송수신한다면, 바닷속은 음파를 이용한다. 수중음향학은 물속에서 소리가 어떻게 전파되는지 산란, 반사, 속도 등 음파의 물리적 특성을 연구하는 것으로, 그러한 특성을 이용해 국방이나 각종 산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제시한다.

대학 연구실로서는 최고 수준의 대형 수조실험실을 보유한 최 교수는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방과학연구소 지원으로, '수중네트워크를 위한 수중 센서 최적 배치'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사실 수중음향학은 제2차 세계대전 시 독일의 유보트 잠수함을 탐지하기 위한 군사적 목적으로 발전했다. 본 연구는 군에서 해역을 감시하기 위해 서로 연동되는 다수의 센서를 바닷속에 배치할 때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인가를 연구하는 것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 중 하나로 꼽히는 사물인터넷을 바닷속에 구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중 하나인 풍력이 입지 및 소음 문제로 육상에서 해상풍력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해상풍력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중소음 역시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그 때문에



1


2

1, 2 해양음향공학연구실 연구팀은 1년에 2달 이상 바다 위에 머물며 실험을 진행한다.

어느 정도의 소음이 어느 범위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측정하고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중이다.

바다처럼 무한한 수중음향학의 영역

진해에서 나고 자란 최지웅 교수는 어린 시절부터 바다를 보며 꿈을 키워왔다. 어린 시절 한때 해군장교를 꿈꾸기도 했지만, 한양대학교 해양학과를 선택해 수중음향학을 공부하면서 여전히 바다라는 넓은 품에서 꿈을 키우는 중이다. 실제 최 교수의 해양음향공학연구실 연구팀은 1년에 2달 이상을 바다에서 지낸다. 미국 워싱턴대학교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하던 시절에는 한 달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대서양 한가운데 떠 있는 연구선에서 실험만 하며 지낸 적도 있다. 하지만 아무리 바다를 사랑한다고 해도 출렁이는 바다 위에서 실험한다는 것은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니다.

"물속에서 장비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켜보려면 컴퓨터 모니터를 응시해야 합니다. 배만 타도 멀미를 하는데 컴퓨터 모니터까지 바라봐야 하니 속이 울렁거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장기간 배 위에서 지낸 뒤 육지에 내리면 이번엔 땅이 흔들거려 육지 멀미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멀미로 고생하면서도 바다에 나가 실험하는 재미를 포기할 수 없다는 최 교수. 가끔은 돌고래 떼들의 응원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비, 바람 등 변수가 많은 해양 연구는 목표한 연구의 50%만 수행해도 대성공이라 절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최 교수는 수중음향학의 전도유망한 미래를 자신 있게 확신했다.

"인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해양 연구는 장비나 센서들끼리 연동해서 작동하는 수중 사물인터넷이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이 분야에서 수중음향학은 핵심 기술이라 할 수 있죠. 그 밖의 해양안보, 해양자원 연구에서도 수중음향학이 기초입니다. 수중음향학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근간 기술이 될 것입니다."

그리 많지 않은 나이에 석학의 반열에 오른 최 교수는 연구에 대한 꿈을 아직 이루지 못했다고 힘주어 말한다. 사물인터넷과의 융합처럼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해 수중음향학의 영역을 확장시킬지 누가 알겠는가. 수중음향학의 발전은 무궁무진하기에 감히 최종 연구 목표를 세울 수 없다고 말하는 최 교수. 대해를 바라보며 꿈을 키웠기 때문일까. 최지웅 교수의 꿈은 무한대로 확장되는 중이다. HY





3



4

3,4 최지웅 교수가 이끄는 해양음향공학연구실에는 대형수조가 갖춰져 있어 실제와 비슷한 환경에서 수중음향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최지웅 교수가 선정된 '미국음향학회' 석학회원이란?

전 세계 7,50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인 '미국음향학회'는 음향학을 선도하는 가장 권위 있는 학회다. 회원 중 최고등급인 석학회원의 자리에는 지난 90여 년간 전 세계에서 550여 명밖에 오르지 못했다. 바꿔 말해, 석학회원은 세계 최고의 전문가임을 상징하는 영예다.



ASA ACOUSTICAL SOCIETY OF AMERICA

1305 Walt Whitman Rd., Suite 300, Melville, NY 11747
T: 516-576-2360 • F: 631-923-2875
E-mail: asa@acousticalsociety.org
Web: acousticalsociety.org

May 18, 2020

Dr. Jee W. Choi
Hanyang Univ.
Marine Science and Convergence Engineering
55 Hanyangdaehak-ro Sangnok-gu
Ansan, Gyeonggi-Do, 15588 Korea

Dear Dr. Choi:

I am pleased to advise that by action of the Executive Council you have been elected a Fellow of the Society. Your election was recommended by the Membership Committee after consideration of your qualifications.

Announcement of your election and presentation of your Fellowship certificate will be made during the plenary session at the 179th meeting in Chicago, Illinois on 10 December 2020.

Meanwhile, we would like to publish an announcement of your election and your photograph on the ASA webpage. Please send us your photograph suitable for this purpose in .jpg format (send to asa@acousticalsociety.org).

The citation that accompanies your photograph will read: "For contributions to the field of acoustic reflection and scattering from the seabed and geoacoustic inversion."

Sincerely,

Susan E. Fox
Executive Director

cc: E. Strickland
P. H. Dahl

건강한 사회는 | 건강한 커뮤니케이션에서

광고홍보학과 **이병관 교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는 유례없는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정확한 대국민 소통이 중요하다.
국내 헬스 커뮤니케이션 1세대 연구자라 할 수 있는 이병관 교수는
감염병 위기 상황 시 국민들과의 빠르고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지 않으면
위기를 극복하기 힘듦을 경고했다.

글 박영임 **사진** 하지권

코로나19 발생,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은?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의 일관된 솔직함, 정보를 바탕으로 한 분석, 그리고 침착함이 한국 국민에게 강력한 진정제가 되었다며 본부장의 활약상을 집중 조명한 바 있다. 이병관 교수는 헬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답게 또 다른 관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역학이나 의학 전공자는 질병의 위험성을 과학적, 객관적으로만 전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나와 가족에게 얼마나 위험한지 주관적인 관점에서 관심을 갖죠. 이전 감염병 사태와 달리 이번에는 이러한 국민 정서를 잘 이해한 상태에서 국민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점을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교수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브리핑을 한 방역당국의 대국민 커뮤니케이션을 높이 평가했다.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으면 공중은 위험한 거짓 정보, 즉 가짜뉴스에 편향되기 쉽다. 이를 '네거티브 도미넌스 모델(Negative Dominance Model)'이라고 한다.

"감염병이 발생하면 정부는 두 가지를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방역에 힘쓰는 한편, 국민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실제 위험보다 더 심각하게 여겨 불안에 떨거나, 반대로 위험한데 대수롭지 않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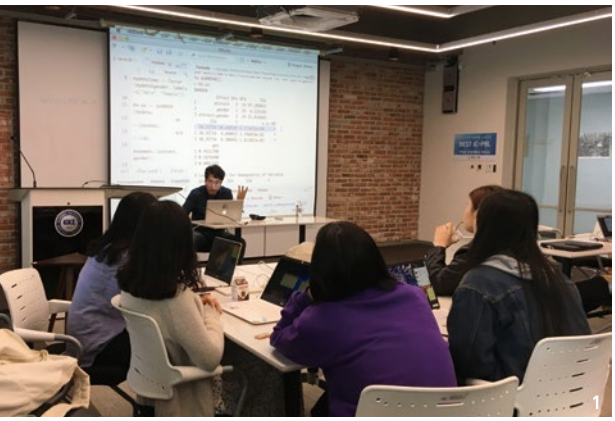
그러면서 실제 위험성보다 더 크게 인식해 사회적 패닉이 야기됐던 사례로 신종플루와 메르스 사태를 들었다. 감염병 발생 시 과도한 공포와 불안을 유포하는 가짜뉴스는 퇴치해야 할 또 다른 바이러스가 되는 셈이다.

국내 헬스 커뮤니케이션 논의의 장 주도

이병관 교수의 연구 분야는 헬스 커뮤니케이션. 우리 사회 전반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탐구하는 분야이다. 즉, 개인과 사회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며', '동기를 부여하고', 때로는 '태도나 행동을 바꾸고', 더 나아가 개인과 사회의 건강과 관련해 '역량을 강화하는' 커뮤니케이션의 한 분야이다. 예를 들면 에이즈(AIDS)·비만 등 질병관리와 예방, 음주운전·데이트 폭력 등 상해와 폭력 예방, 식품안전·재해 등 건강 관련 위기에 대한 대처와 반응, 흡연·폭음 등 공중보건과 같이 개인이나 사회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주제들이 많다. 그 밖에 정책, 의료 및 제약 산업도 헬스 커뮤니케이션의 연구 주제에 속한다. 이렇게 연구 분야는 다양하지만 모두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10년간 신종플루, 메르스 같은 감염병이 창궐하면서 헬스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10년 전만 해도 국내는 헬스 커뮤니케이션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다. 사실 이병관 교수도 미국 유학 시절 헬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분야를 처음 접했는데 생소한 분야라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지도교수와 아프리카의 에이즈 및 가족계획 캠페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헬스 커뮤니케이션의 매력에 빠져들고 말았다. 이제는 당시 지도교수에게 뭐라고 감사를 표해야 할지 모를 정도라고.

"헬스 커뮤니케이션의 매력은 연구 대상과 목표가 추상적이지 않다는 점, 즉 실재적이고 명확하다는 점입니다. 건강 문제를 해소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는 소박한 자부심도 느끼고요."





1 이병관 교수는 진정한 사회과학도를 키우기 위해 학생들의 역량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2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초대회장을 지낸 이병관 교수는 국내 헬스 커뮤니케이션의 발전을 이끌어온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

귀국 후 몇몇 뜻이 맞는 연구자들과 헬스커뮤니케이션연구회를 창단한 이 교수는 2009년 정식 학회로 발전한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의 초대회장을 맡았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의 에이즈/결핵 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에이즈 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

특히 이병관 교수의 관심 분야는 다양한 질병 관련 캠페인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 캠페인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 캠페인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평가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국내에서 금연 다음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결핵 캠페인의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캠페인의 효과를 평가하려면 캠페인에 노출되기 전과 후의 태도 및 행동 변화를 측정해야 하는데 통제되지 않은 일상 환경에는 너무나 많은 변수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확하게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론적 한계를 통계적 알고리즘을 통해 극복하여 보다 엄밀한 효과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최근에 수행된 연구들은 이러한 관심을 반영한 것이죠."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이 교수는 국내 결핵 캠페인의 효과 평가를 의학저널 중 하나인 '국제 결핵 및 폐질환 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Tuberculosis and Lung Diseases)'에 발표했다. 현재는 베이지안 구조 시계열 모델(Bayesian structural time series mode) 알고리즘을 활용해 지난 5년간 금연 캠페인 효과를 측정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보람을 찾다

지난 2015년 메르스 발발 당시 국가감염병위기관리 전문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이병관 교수는 국민들의 여론을 실시간으로 살피기 위해 SNS 메시지에 주목했다. 당시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하여 SNS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구축하던 중 공교롭게도 메르스가 발생해, 관련된 실제 SNS 여론을 수집 분석하며 메르스 차단 노력에 동참하기도 했다. 이번 코로나19 발생 때도 질병관리본부에 SNS 데이터를 꾸준히 모니터링할 것을 조언했다. 이렇게 이 교수는 헬스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머신러닝이나 AI를 활용한 데이터 사이언스에도 관심이 많다.

"일부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스스로를 '과학도'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사회과학 또한 사회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접근방법이 필수적입니다.

우리 사회 전반의
건강 향상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탐구
AI, 머신러닝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SNS 여론 키워드 외)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추상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을 지양하고 이론을 바탕으로 한 근거 중심의 사고를 늘 강조합니다."
헬스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의료 서비스에 관심을 두게 됐다는 이 교수는 지난해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IC-PBL(Industry-Coupled Problem-Based Learning)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 조합과 커뮤니티 헬스 커뮤니케이션 협력 수업을 진행한 결과, 학생들로부터 학생자원봉사자 플랫폼 등 기발한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었다. 이렇게 지역사회에 일조하는 길을 찾고 싶다는 이 교수는 조만간 안산시 내 지역별 조합원들의 건강지표를 알 수 있는 '안산시 건강지도'도 만들 계획이다. HY



김우승 총장 스페셜 지면강의 ❶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학원 교육의 필요성

시대와 교육은 상호작용을 통해 함께 변화해간다.
과거의 교육을 답습해서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울 수 없고,
시대의 변혁 없이는 교육의 미래를 논할 수 없다.
한양대학교 김우승 총장의
스페셜 지면강의를 통해
미래 시대와 교육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지 헤아려 보자.

정리 편집실 **자료** 대외협력팀



*** 지면강의 안내 ***
소식지 2회에 걸쳐 김우승 총장의
스페셜 지면강의가 진행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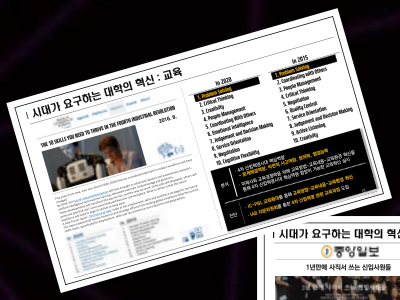
1회(Vol.95)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성, 대학원 교육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하여

2회(Vol.96)
대학의 혁신 사례,
ERICA의 미래와 비전에 대하여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인류는 역사상 네 번째의 산업혁명을 맞이하고 있다.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 증기기관의 발명과 함께 찾아왔다. 2차 산업혁명은 19~20세기 전기와 내연기관의 발전으로, 3차 산업혁명은 20세기 컴퓨터와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산업 물결로 시작됐다. 이제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것은 AI와 IoT, 뇌 과학, VR, 자율주행 자동차, 3D 프린팅 등의 신기술이다. 이런 기술들이 융합하며 더 새로운 기술과 플랫폼을 창출하는 대변혁의 시대. 우리가 직면한 4차 산업혁명은 그 어느 때보다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가 될 것이다.

시대의 변화에 맞물려 대학의 역할 역시 변모해왔다. 18세기까지의 1세대 대학은 소수의 전문지식인(Professor)이 소수의 전문지식인(Scholar)을 양성하는 기관이었다. 이후 2차 산업혁명 시기의 2세대 대학은 인구급증과 대량생산 시기에 맞게 정확한 기술을 대규모 인원에게 전수하는 기관이었다. 2000년대까지의 3세대 대학은 보편적 교육을 하는 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4세대를 맞은 현재의 대학은 사회와 학문, 산업과 연구, 학생과 세계를 연결하는 이른바 '네트워크 유니버시티(Network University)'로 거듭나고 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해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 또한 오늘날의 대학이 가져야 할 덕목이다.









변화하는 시대, 어떤 인재를 요구하는가?

예측하기 어려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성장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문제해결역량과 비판적 사고역량, 창의력, 협업능력이 주요 핵심역량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대학은 교육의 방법과 내용, 환경 혁신을 통해 미래사회의 경쟁력을 확보해가야 한다.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점점 대규모 공채를 폐지하고 소규모 수시채용을 확대하는 추세다. 그리고 구글과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등 세계 최정상 기업들은 '대학 졸업여부와 상관없이 직무의 전문성과 직무관리 경험 위주로 인재를 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제너럴리스트(generalist)가 아니라 스페셜리스트(Specialist)가 되어야 한다. 전문성 강화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할 때다.

산(産)과 학(學)의 연결성 강화로 길을 찾아야 할 때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초연결 시대와 일맥상통한다. 모든 것이 연결돼 새로운 아이디어와 가치의 발견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은 캠퍼스 안과 밖, 학교와 산업의 연결성 강화를 위해 뛰어야 한다. 한양대학교는 캠퍼스 안 프로그램으로 산업연계형 문제해결교육인 IC-PBL을, 캠퍼스 밖 프로그램으로 현장실습 고도화 프로그램인 CO-OP를 운영 중이다.

IC-PBL은 실제 산업현장의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수업 시나리오를 제작하고, 실제 산업 관계자가 참여하는 수업 결과물 평가로 진행된다. 한양대의 IC-PBL은 국제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아 유네스코 PBL 센터(UNESCO PBL Center)에도 등재됐다.

CO-OP는 대학생들에게 실제 산업현장의 업무 경험을 제공해 직무 적응력과 전문성을 높이는 최고의 진로지원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장실습교육이 정부 주도하에 시작됐지만, 선진국에선 학생의 직무 경쟁력 강화와 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방안으로서 학교-기업이 중심이 돼 진행해왔다. 모든 것이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대로 된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최신 기술을 확보하려면 무엇보다 대학이 산학협력의 능동적인 주체로 협력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도 한양대의 CO-OP는 의미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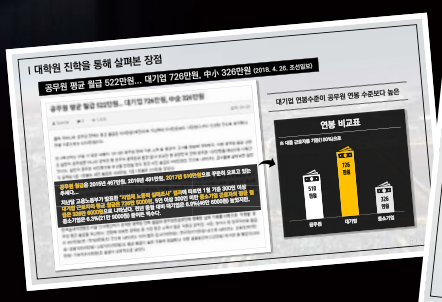
대학원 진학의 가치와 장점 제대로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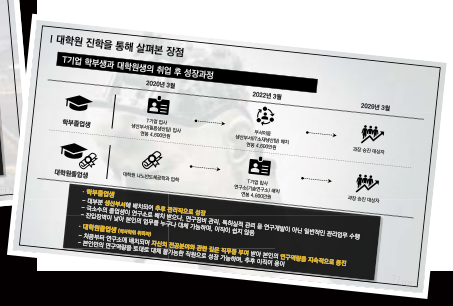
4년제 대졸자 노동시장의 변화를 살펴보면 대학교육과 직업훈련이 기술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업계에서 원하는 인재의 자질과 학부생의 교육, 기술 수준의 미스매치로 인해 취업률 저하 현상이 나타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페셜리스트의 자질을 갖추는 일이다. 하지만 학부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만큼의 전문성을 배양하기 어렵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과 굴지의 기업 CEO들도 학부와 석·박사 졸업자는 그 지식의 깊이와 폭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학사 학위만으로는 전공 분야를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취업률과 연봉에서도 극명한 차이가 있다. 학부 졸업자보다 석·박사 졸업자의 취업률이 더 우수하다.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에 따르면, 2017년 취업률에서 4년제 대학 졸업자는 62.6%, 일반대학원 졸업자는 77.7%를 기록했다. 또 대학 졸업 근로자의 연봉을 100%라 쳤을 때 대학원 졸업 근로자의 연봉은 159.6% 수준이라고 집계된 바 있다. 특히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는 석·박사 학위 취득이 취업의 필수로 꼽힌다.

과거와 비교하면 인간의 기대수명은 굉장히 길어졌다. 대학교 학부 4년 과정에서 배운 것만으로 100세 시대를 살아가기에는 부족하다. 4차 산업혁명이 촉발시킨 융합시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은 필수다.

그리고 전문성과 융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법으로서 대학원 진학의 가치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HY





아는 만큼 ____ 보이는 LINC+사업

한양대학교 ERICA는 '학연산 클러스터'로 대변되는 명실상부 국내 대학 최고의 산학협력 특화 대학이다.
개교 이래 언제나 교육과 연구, 기업을 연결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온
ERICA의 비전은 현재 LINC+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학교 곳곳, 우리 가까이에 있었지만 그동안 잘 몰랐던 LINC+사업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한다.

정리 김현지 **자료** LINC+사업단



지역사회 상생 발전 이끄는 LINC+사업

ERICA는 2012년 3월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원하는 LINC사업(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에 선정돼 5년간 20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다. 이를 계기로 산학협력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학협력형 대학체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왔다. 그 결과 연속해서 최우수 대학에 선정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LINC사업이 종료되던 2017년, ERICA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강조한 LINC+사업(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에 선정됐다. 2022년까지 5년간 이어지는 이 사업에는 현재 55개 대학이 참여 중이다. LINC+사업은 대학의 산학협력 지원을 통한 청년 취·창업 확대, 중소기업 혁신지원 등 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 이 때문에 ERICA는 학교가 자리한 안산시, 경기도를 포함한 지역사회로 협력대상을 확대해 상생 발전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LINC+ :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사업 지원/전담기관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사업 기간 : 2017.04.01 ~ 2022.02.28 (5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교-기업-사회 연결

ERICA의 LINC+사업은 재학생의 실무능력을 배양하는 인재양성 프로그램, 지역 내 기업의 주요 기술과 재직자 업무 역량을 높이고 학교와 연구기관, 기업의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기업지원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있다.

···o 인력양성 프로그램

1. 캡스톤 디자인 : 학부생 스스로 설계, 제작, 평가하는 창의적 종합설계 프로그램으로 재료비와 경진대회 참여 지원
2. 현장실습 E-WIL : 학부생이 현장에서 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국내외 산업 현장에서 실무를 체험하고 현장 감각을 익히는 프로그램
3. 학연산클러스터교육 : 학연산클러스터 입주 기관 및 산업체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산업연계형 교과목. 실무자와 함께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탐구능력을 배양하는 프로그램
4. 창업교육 : 창업에 관심 있는 학부생들의 위험부담 없는 도전을 위해 창업교육 및 창업동아리 활동 지원. 놀리지 팩토리(Knowledge Factory)를 통해 창업 공간, 멘토링, 기업 네트워킹 등 제공
5. 창의공작 공간 놀리지 스튜디오(Knowledge Studio) : 학생들이 본인의 아이디어를 직접 실현하고 창의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공작공간 운영. 3D 프린터, 레이저 커터, 목공실습 기구, 촬영 스튜디오 등 구비

···○ 기업지원 프로그램

1. 기술개발과제 : ERICA와 참여기업이 공동으로 신기술을 개발해 기업의 성장 지원
2. 산업체 재직자 교육 : 산업체 재직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재직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지원. 전기전자, PLC, 반도체 등의 이공계열뿐 아니라 경영, 디자인 교육 등도 제공
3. 기업자문 : ERICA 교수 및 자문위원이 기술 역량이 취약한 기업에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기술 경쟁력 제고. 경영품질, 제품디자인, 법률 등의 자문 활동으로 산학연 간 협력관계 증진
4. 공동장비센터 :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보유하기 어려운 고가 장비를 보유해 중소기업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5. 산학협력협의회 : 대학, 기업, 연구소, 정부 기관 인력으로 구성된 정보교류의 장. 반도체, 건축, 사회적경제 연구 등 현재 15개 분야의 협의회 운영 중

LINC+사업 우수 사례 엿보기

···○ 현장실습 프로그램

ERICA는 2018~2019년 중앙일보 대학평가 '학생 교육 노력 및 성과 부문'에서 현장실습 비율 2년 연속 전국 2위를 달성했다. ERICA는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모든 실습기관이 학생에게 실습지원비를 지급하게 하고, 실습 참여학생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체계적이고 확실한 관리 활동을 통해 올바른 현장실습 문화 조성을 선도해왔다. 2019년 총 168개 기관이 약 22억 원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해 현장실습 선도모델을 창출한 바 있다. 지난해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 중 15명이 해당 실습 기관에 정규직으로 취업했다. 현장실습 참여기업에서 ERICA의 우수 현장실습 활동 학생에 대한 포상을 진행하기도 했다.

···○ 지역사회 활동

ERICA는 지속적으로 경기도, 안산시 등의 지자체, 지역건축사회, 사회적경제혁신센터 등의 지역 기관, 한국테크놀로지를 비롯한 여러 지역 기업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협업체계를 구축해왔다. 지난해 10월에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학협업 시범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사업의 일환으로 대학동상인회와 더불어 캠퍼스 앞 식당들의 '신 메뉴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다(2019.10.10~11.20). 이 '신 메뉴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미스터피자와 함께 개발한 피자 메뉴 '복희야 눈을 감자'는 좋은 반응을 얻으며 이슈가 된 바 있다.

···○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특허청에서는 매년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를 개최한다. 기업 연구기관이 출제한 기술 주제에 대해 대학(원)생이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기업이 채택해 활용하는 프로그램으로, 상금과 취업 증진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대회다. ERICA 역시 매년 참가해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18년도에는 최다 수상자를 배출했고 2019년에는 최다응모대학상을 수상했다. 신청서를 접수한 학생들은 LINC+사업단 박종훈 교수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대회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멘토링 일정 : 2020.06.25~08.06 매주 목요일 19시
문의 : 박종훈 교수 031-400-5673,
jhpark11@hanyang.ac.kr

“현장의 업무 프로세스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이영호(전자공학부 13)

4학년이 되고 취업을 준비하며 제게 특별한 스펙이나 스토리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실무 경험을 쌓는 게 좋겠다는 판단으로 평소 관심 있던 직무 현장실습을 지원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는데 수상까지 하게 돼 기쁩니다. 효성중공업연구소 DC grid팀에 소속돼, 미래 중공업 시장에서 상품화시킬 수 있는 가치를 연구하고 기업이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을 했어요. 제품 제작과 재고 조사까지, 어떤 식으로 업무가 처리되는지 프로세스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능동적인 업무가 많아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래도 적응 후 적성에 맞기도 하고 제품을 테스트하는 과정에 재미도 느꼈습니다. 생각보다 현장실습을 망설이는 친구들이 많은데, 단기 현장실습도 있으니 꼭 경험해보면 좋겠어요. 현장실습에서의 경험이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되고, 진로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값진 경험이 될 겁니다.

“실무뿐 아니라 대인관계 노하우도 얻었죠”

김현서(산업경영공학과 14)

현장실습 우수성과로 수상할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초반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끝까지 노력한 것을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효성중공업연구소 기술경영팀은 연구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연구과제를 관리하고 기획하는 부서입니다. 과제들의 진행사항을 파악, 점검하고 사전조사를 진행할 뿐 아니라 다른 기업들을 컨택하고 대학교들과 연계해 연구과제를 전달하기도 하죠. 초반에는 단순한 문서 작업이 많아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여러 작업을 하면서 실무뿐 아니라 대인관계에서도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이번 현장실습 경험을 바탕으로 저만의 스토리가 많아졌다는 점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현장실습 프로그램이 아주 잘 구축돼 있어요. 관련 센터도 따로 운영하고 있죠. 현장 근무를 경험해보고 싶을 때, 직접 센터를 찾아가 상담을 받거나 기업 관련 자료를 얻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실습 우수성과 학생 INTERVIEW



“현장실습으로 전공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요”

류태영(해양융합공학과 15)

학과 교수님의 추천으로 현장실습을 결심했어요. 실험이 주가 되는 능동적인 업무이고 평소 관심 분야나 제 성격과 잘 맞아 농어촌공사를 선택했죠. 농어촌공사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실험실을 보유하고 있어요.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큰 규모의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수리모형을 의뢰받은 후 모의실험을 진행했죠. 사수 분께서 알려주신 방법에 따라 실험하고 결과값을 전달하는 거였습니다. 진로를 명확히 세웠다면, 관련 기업에서 현장을 경험해보는 게 취업뿐 아니라 취업 이후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실제 전문가들로부터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고, 다른 취업 경쟁자들과의 차별성을 만들 수 있죠. 또 현장실습으로 사회생활 체험도 하고요. 학과나 관심 분야와 관련된 기업, 현장실습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찾아보는 게 중요해요. 저는 현장실습을 통해 전공을 100% 살려 취업할 수 있으리란 확신을 얻었습니다.



▲ 친환경건축기술 기업협업센터 태성호 센터장

LINC+사업 기업협업센터 소개

친환경 건축의 길을 찾다

친환경건축기술 기업협업센터

ERICA에는 LINC+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5개의 기업협업센터가 있다. 이들은 적극적인 산학협력 모델로서 LINC+사업을 통해 대학 연구소와 기업을 아우르는 멤버십을 체결하고, 대학이 가진 기술과 노하우를 멤버십 기업체의 요구에 맞춰 전수하고 있다.
5개의 기업협업센터 중 친환경건축기술 기업협업센터를 찾았다.

글 김현지 **사진** 하지권

친환경 성능평가 분야의 선도적 연구센터

친환경건축기술 기업협업센터(Sustainable Building Research Industrial Cooperation Center, 이하 SUSBi)는 2005년 개소한 친환경건축기술연구소로부터 출발했다. 친환경 건축에 관련된 전반적인 연구를 수행하며, 건축재료 및 건축물이 전 생애주기 동안 지구환경에 미치는 다양한 환경 영향을 정량적으로 도출하는 툴과 방법론을 개발한다. 2015년부터 건축학부 태성호 교수가 연구소를 이끌고 있다.

"지금은 정년퇴임한 신성우 교수님이 처음 친환경건축기술연구소를 만드셨고, 이후





제가 이어받았죠. 2017년에 LINC+사업 기업협업센터(ICC) 중 하나로 지정됐어요. 우리 센터는 툴과 방법론이 우선되는 연구를 하기에 무엇보다 사람이 중요한 자원입니다."

SUSBi의 수장인 태성호 센터장은 연구 활동이 주로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센터에는 현재 연구원과 학생, 행정지원 인력을 합해 20여 명이 소속돼 있다. 건축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문제는 전 세계적인 이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이 친환경 건축이냐 묻는다면, 답을 내놓기 쉽지 않다. 국내에서는 아직 그 평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탓이다.

"친환경 건축은 일반인에게도 낯설지 않은 개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황토나 친환경 페인트, 에너지 손실이 적은 단열재와 창호, 태양광 패널 등 친환경 재료 또는 설비가 들어간 것 모두 친환경 건축이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요소기술이죠. 우리 센터는 친환경 요소기술들을 아울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SUSBi는 국내의 친환경 건축 성능평가 연구를 선도적으로 이끄는 연구소다. 관련 개념이 생소하던 시절부터 연구에 매진해왔다.

태성호 센터장은 친환경 건축 산업계에서 이미 SUSBi가 개발한 독창적인 STEP(Sustainable Total Evaluation Program) 프로그램을 친환경 성능평가 툴로 활용 중이라고 밝혔다.

LINC+사업 ICC로 지속가능한 발전 모색

SUSBi의 STEP은 건축물 친환경 성능의 전 과정을 평가하는 프로그램들의 그룹이다. 건축재료 레벨과 건축물 레벨로 구분되며, 현재까지 개발목적에 따라 평가기능이 다른 4가지의 프로그램이 개발돼 있다. 이 프로그램들은 건축재료 및 건축물의 환경부하 평가와 녹색건축인증(G-SEED) 수행을 돕고, 평가결과에 따른 대안을 제시해 지속가능 건축물 설계를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콘크리트를 대상으로 하는 STEP-C, 빌딩을 대상으로 하는 STEP-B가 대표적이다.

LINC+사업으로 SUSBi는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다. 기존에 주로 건축재료나 건축물에 한정된 친환경 성능평가의 연구범위도 도시까지 확장됐다. 이에 따라 STEP-U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최근 정부 주도로 스마트시티나 도심재생사업이 이뤄지고 있어 더 기대를 모은다. 산학협력 측면에서도 고도화를 이뤘다. 친환경 건축과 관련된 산업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도 LINC+사업의 지원은 큰 힘이 됐다.

"LINC+사업 ICC로 선정되며 조금 더 현장과 가깝게, 적극적인 산학협력을 펼치는 연구소로 성장하고 있어요. LINC+사업은 센터의 지속가능한 발전, 제2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큰 수확은 자립 시스템 마련이다. 정부나 민간 연구과제의 지원금은 일정 기간 안에 모두 소진해야 해서 연구과제가 끝난 후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LINC+사업은 이런 폐해를 없애고자 멤버십 제도를 도입, 센터가 산학협력에 기여한 만큼 기업들로부터 멤버십비를 받아 연구비 적립에 나섰다. 이를 통해 LINC+사업이 끝난 후에도 걱정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게 됐다. SUSBi는 107개의 기업과 멤버십을 체결한 상태다.

"우리나라의 친환경 건축도 선진국에 준하는 수준입니다. 환경선진국들이 민간기업이나 산업체 중심으로 친환경 건축을 리드하고, 우리는 정부나 연구소를 중심으로 제도화한다는 게 차이점이죠. 앞으로 5~10년 내로 어떤 것이 친환경 건축인지 개념이 확실히 자리 잡을 거예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연구에 임하며, 건축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조직으로서 국내를 넘어 세계의 연구를 선도해가고자 합니다." HY

가족 3대의 특별한 인연

우리는 모두 한양인!

모교 사랑으로 맺은 특별한 인연!

금성제어기(주) 한상준 회장은 한양대학교 전기공학 56학번 동문이다.
지난 2012년부터 꾸준히 모교에 기부를 이어오며 '제10회 자랑스러운 한양공대인상'을 받기도 했다.
올해로 졸업 60주년을 맞은 한상준 회장은 선물처럼 한양대와 더욱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됐다.
그의 손녀인 한윤재 학생이 한양대 전자공학부 20학번 새내기가 되면서, 그의 가족 3대가 모두 한양의 동문이 된 것이다.



손녀의 입학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어요.
아들에 이어 손녀까지 한양인이 되다니, 정말 특별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의대나 법대를 제외하고
기술계통에서 같은 대학, 같은 과를 3대가 졸업하는 일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계획한 것도, 강요한 것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가족 3대가 모두 한양인의 타이틀을 거머쥐게 돼
자랑스럽습니다. 아버지와 제가 한양에서 성장했듯이,
딸아이 역시 한양대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자신만의 꿈을 찾아 나가길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한양대에 관해 많이 듣다 보니
자연스럽게 진로를 결정하게 됐어요.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따라 같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이제 한양의 20학번 새내기로서
자랑스러운 후배가 되고 싶습니다. HY


손녀
한윤재
(전자공학 20)
아들
한형섭
(전기공학 87)
할아버지
한상준
(전기공학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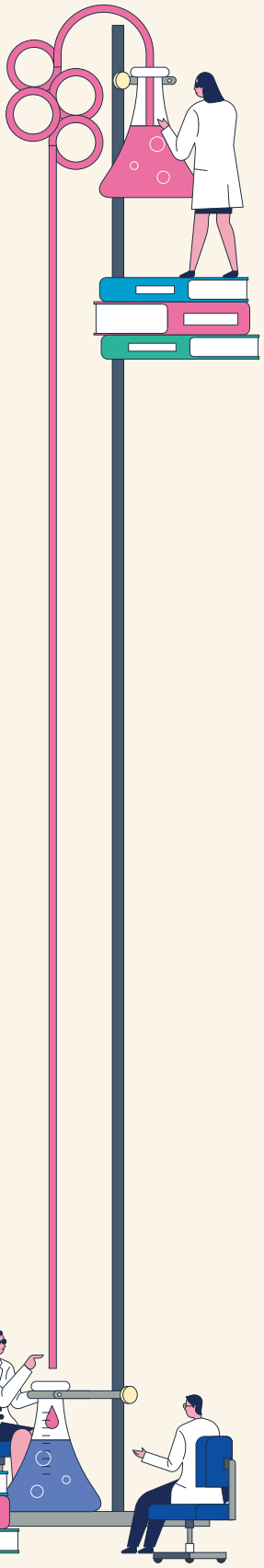
지난 _____ 10년의 길이 자랑스러운 전통이 되다

약학대학 약학과



약학대학 약학과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다양한 전공과 경험을 지닌 약학 전공자를 육성하겠다는 취지 아래 시행된 2+4년제 도입과 함께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3학년 신입생을 받기 시작한 약학과는 어느덧 18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또한 6년 연속 약사국가고시 100% 합격률을 기록하며 자타공인 국내 최고의 약학과로 우뚝 섰다.

글 박영임 **사진** 하지권



이론과 실무 교육의 완벽한 조합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의 일상과 경제가 멈췄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백신 및 치료제가 개발돼야 하기에 그 어느 때보다 신약 개발의 중요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첫 개발 국가가 패권을 장악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 이제 우수한 약학 연구 인력 양성은 국가경쟁력 제고와도 직결되는 일이 됐다. 더불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지역사회의 최전선을 지키는 약국의 역할이 재조명되며 약학과를 향한 관심은 더욱 높아졌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는 약학과에 있어 사회적 책무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또한 올해는 약학과가 1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이기도 하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약학과는 전국 최고의 약학과로 성장했다. 노유섭 학생(약학과 17)은 "ERICA 약학과는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 준비생들 사이에서 최상위권 학생들만 도전할 수 있는 학교로 정평이 나 있다"며 자부심을 나타냈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비결은 무엇일까. 그 해답은 ERICA 약학대학 약학과 류종석 학장의 학과 소개에서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었다.

"전국 약학과 중에서 우리보다 실무실습 교육을 완벽히 하는 학교는 없을 겁니다. 약국 실무실습을 위해 모델약국을 설치하고, 1년에 한 번 실무실습교육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 한약재 및 생약학 연구에 도움이 되는 약초원과 신약 개발 과정에 필요한 실험동물센터도 운영 중입니다."

약학과는 산업 약사나 임상(병원 약국·지역사회 약국) 약사, 연구 약사를 양성하고자 생물학, 화학 같은 기초학문 위에 제약, 임상, 연구 등 실무실습으로 전문적인 약학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래서 제약기업 트랙, 임상 트랙, 연구 트랙이라는 3가지 트랙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이 3개 트랙은 다름 아닌 약학과 학생들의 진로를 반영한 것이다.

5학년부터 현장실습 교육을 하는데 관련 업계와의 탄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현장실습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제약기업 실습은 한미약품에서, 병원약국 실습은 한양대학교 서울의료원에서, 지역사회 약국 실습은 안산시약사회와 MOU를 맺고 안산시 내 약국에서 시행한다. 류종석 학장은 "학과는 학생들이 선택한 진로와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찬우 학생(약학과 16)은 "원하는 분야에서 마음껏 현장실습을 받을 수 있어 안심된다"며 "타 학교 약학과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실습처를 구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100% 합격률의 비결은 함께 그리고 더불어 문화

6년 연속 약사국가고시 전원 합격. 이는 약학과의 자랑이다. 6회 졸업생을 배출했으니 졸업생 모두 합격한 셈이다. 이에 대해 류종석 학장은 "PEET 준비생들 사이에서 1순위 지망 학교로 꼽힐 정도로 인기가 많아 우수한 인재들을 확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약사고시 과목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교육과정에 반영해 수업만 열심히 들어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국가고시 준비생들이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고시 준비실을 따로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학과의 적극적인 지원에 학생들도 자발적으로 움직였다. 4~5명씩 스터디그룹을 구성해 서로 독려하며 함께 시험 준비를 하기 때문에 더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이다. 학생들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조직된 국가고시 스터디그룹은 어느새 약학과의 전통이 됐다.

"학생들을 가르친다기보다 길러낸다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 전달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으로 학생들이 마음껏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류종석 학장은 약학과에는 자랑스러운 전통이 하나 더 있다고 설명했다. 바로 교수와 학생들 사이에 유대감이 남다르다는 점이다. 신입생이 입학하면 한 교수당 2~3명의 학생이 멘토와 멘티 관계를 맺는데, 해마다 한 학년씩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같은 교수에 속한 선후배 학생들끼리도 자연스레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편입 선발을 거치기 때문에 선배보다 나이 많은 후배도 많다. 그래서 약학과 학생들은 학년보다 나이를 존중하는 문화로 화합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전통은 이미 PEET 준비생들 사이에서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박찬우 학생은 "교수님과 학생, 그리고 선후배 간에 교류가 활발해 재미있는 학교라는 이야기를 들어 지원했다"고 말했다. 나재훈 학생(약학과 18)은 "신입생이지만 나이가 많은 편인데 선배들이 먼저 다가와 줘 고마웠다"며 "약학과만의 훈훈한 문화를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코로나19로 원격수업으로 첫 수업을 시작해 아쉽다는 오승환 학생(약학과 18)은 "사이버 강의만으로도 과 내 분위가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대면 수업이 기대된다"고 귀띔했다.

미래 먹거리 바이오산업 인재 육성에 박차

지난 10년간 건실하게 성장을 이어온 결과, 하나둘 구체적인 성과들이 결실을 보고 있다. 산학협력연구를 통해 모 제약기업과 수십억 원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약학과는 앞으로 산학협력연구를 더욱 활발히 진행하기 위해 교육부의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바이오의약 미니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있다.





1







1 약학과는 서로 존중하는 문화 속에서 화합을 이루기로 유명하다.

2 늘 학생들 입장에서 미래를 고민하는 류종석 학장(중앙)은 6년 연속 약사국가고시 전원 합격이라는 대기록을 이뤄냈다.

3 ERICA 약학대학 약학과는 완벽한 실무실습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휴온스, 라이프지노믹스 등 바이오 기업들과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산학협업 실험실을 조성할 예정이다.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분주하게 움직이는 약학과는 2019년 보건복지부 사업인 '바이오메디컬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에 선정돼 지난해 2학기부터 대학원 석박과정, 학문 후속세대들에게 해외 연구기관의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며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ERICA AI융합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에 기반을 둔 신약 개발, AI를 이용한 바이러스의 변이 예측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약학과로 거듭나는 중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통합 6년제 전환에도 대비하고 있다. 2022년부터 고교 졸업생을 신입생으로 맞이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새롭게 수립하고, 강의실 및 교원을 확충할 예정이다.

"통합 6년제로 개편되면 약학과의 외연이 더욱 확대될 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접목해 더욱 다양한 분야로 시야를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주하지 않고 진취적인 자세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려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해주길 바랍니다." HY

뜨거운 태양보다 빛나는 열정으로!

가슴 뜨거운 열정으로 하고 싶은 일도, 도전하고 싶은 것도 많은 청춘들. 대학생활에 대한 수험생들의 여러 궁금증을 풀어보고,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ERICA 선배들의 조언을 제공한다.

정리 편집실





벌써 올해의 반이 지났습니다. 수능 막바지 공부, 특별한 노하우가 있을까요?

수능 막바지에는 새로운 것을 공부하기보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복습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국어와 영어의 경우 자주 틀리는 유형을 정리하고, 해당유형의 문제를 반복해 풀어보세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개념들이 정확한지 점검하고 꼼꼼히 복습하는 게 실전에 도움 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수능이 다가올수록 몸과 마음 건강을 챙기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건강한 음식과 적절한 운동, 규칙적인 수면을 통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세요. 이 시기에는 자존감이 많이 낮아질 수도 있는데,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신을 조금 더 믿어보세요.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개학과 수능이 연기되며 수험생분들이 아주 혼란스럽고 뒤숭숭할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마음의 중심을 잘 잡고 끝까지 꾸준히 공부한다면 원하는 수능성적과 입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한대 대사들도 수능 날까지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사랑한대 15기 김창영 대사

정확히 제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앞으로의 진로, 학과 결정이 고민이에요!

중·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려보면 주어진 공부만으로도 바빠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게 무엇인지 고민할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진로와 학과를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먼저 ERICA의 다양한 학과 정보를 알려주고 싶어요! 한양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ERICA의 여러 학과소개를 볼 수 있는데, 학과의 특성과 장점, 활동, 졸업 후 진로까지 상세히 나와 있답니다. 해당 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자질까지 알 수 있어 도움이 될 거예요. 또 '사랑한대' 공식 SNS를 팔로우하길 추천해요! 학과와 전공에 대해 재미있게 알려주는 다양한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거든요.

사실 대학 입학 후에도 진로 고민은 계속돼요. 그래서 ERICA는 '커리어개발센터'를 통해 재학생의 진로 설계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경력 개발, 취업 역량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 선생님 또는 교수님과 진로상담을 할 수 있고, 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진로진단을 할 수도 있어요. ERICA에서 우리 함께 미래를 고민해봐요.



사랑한대 15기 김소진 대사



대학생활에 대한 로망을 이루고 싶은데, ERICA만의 특별한 동아리가 있나요?

누구나 대학교 동아리 활동에 대한 로망이 있을 거예요. ERICA에는 이런 로망을 실현시킬 동아리들이 많습니다! 소속 단과대학, 학과 관련 없이 ERICA인이라면 모두 가입 가능한 '중앙동아리'가 있고, 각 단과대학이나 학과 내부에도 '학회'가 있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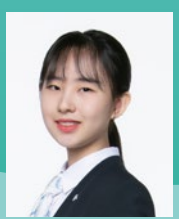
ERICA 중앙동아리는 무려 50개가 넘습니다. 구체분과, 체육 분과, 교양분과, 학술분과, 봉사분과, 종교분과, 연행분과, 평예분과 총 8가지의 다양한 분과로 나뉘죠. 이 중에서 개성 가득한 동아리를 꼽자면 바닷속을 탐험하는 '스킨스쿠버', 직접 칵테일을 만드는 '마티니', 교내의 고양이들을 돌보는 동물 보호 동아리 '함께하냥' 등이 있어요. 저는 뮤지컬동아리 'VIVA'에서 활동했습니다. 작은 역할이었지만 공연을 올리기도 했죠. 흥미가 비슷한 또래 부원들과 함께 어울려 준비하던 것이 즐거운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ERICA 동아리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페이스북 '한양동연(www.facebook.com/HYUnivCA)'을 참고하세요! ERICA만의 특별한 동아리 생활을 꼭 경험하길 바랍니다.



우연히 ERICA의 '하냥이' 캐릭터를 봤어요. 너무 귀여워서 갖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많은 친구들이 우리 학교 마스코트인 '하냥이'를 귀여워하는데요. 하냥이는 ERICA 대외협력팀에서 제작한 파일, 키링 인형, 배지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하냥이 굿즈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여러 행사를 통해 판매, 배포되고 있어요. 하냥이는 굿즈뿐만 아니라 이모티콘으로도 만날 수 있답니다. ERICA 공식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방문하면 다양한 하냥이 아이콘과 일러스트를 확인할 수 있어요.

사랑한대 대사들이 중·고등학생 친구들과 함께 학교를 둘러보는 '캠퍼스 투어'나 고등학교를 직접 찾아가 학교와 학과를 소개하는 '안녕하세요 행사'를 진행할 때 다양한 하냥이 굿즈를 상품으로 드리곤 해요. 현재는 코로나19로 이런 활동을 할 수 없게 돼 정말 아쉬운 마음입니다. 대신 친구들이 어서 우리 학교에 입학해서 하냥이를 다양한 굿즈로 만나보면 어떨까요? ERICA 입학처 홈페이지(goerica.hanyang.ac.kr)에 입학을 위한 자세한 정보들이 나와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HY



사랑한대 15기 이현경 대사



사랑한대 15기 정민주 대사

학생에서 교수로!

올해 초 공학대학 교통·물류공학과 교수로 부임한 이건우 교수가
모교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재학 시절, 동아리와 학생회 활동을 하며 열심히 누볐던 캠퍼스를
이제는 교수가 되어 다시 찾은 것이다.
모교라는 공감대로 학생들과 소통을 이어가며 교육과 연구에
충실하겠다고 말하는 그를 만나본다.

글 오인숙 **사진** 하지권



모교로 온 교통 전문가

교통·물류공학과 이건우 교수 (교통공학과 96)



후배이자 제자인 학생들과의 만남 기대

지난 3월 부임한 이건우 교수는 ERICA 교통공학과 96학번 동문이다. 졸업 후 미국 MIT와 캘리포니아대학교 어바인 캠퍼스(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에서 학업을 마치고 돌아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5년간 해운·항만 및 국제물류 분야 연구를 담당했다. 지난 2017년 중앙대학교 국제물류학과 교수로 강단에 섰고, 올해 ERICA 교통·물류공학과 교수로 다시 모교의 캠퍼스를 밟았다.

"국제물류학과는 경영경제대학 소속으로 경영학 기반의 학문입니다. 제 학문적 배경이 공학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약간의 괴리감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공부한 것을 100% 발휘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마침 모교인 한양대의 제안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모교에서 교수로 활동하는 첫해인 만큼 각오도 남다르다. 모교라는 편안함도 있지만, 후배이자 제자인 학생들을 잘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에 책임감과 부담감이 더욱 크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개강으로 아직까지 학생들과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비록 온라인이기는 하지만, 첫 수업을 진행했을 때는 편안함과 긴장감이 동시에 밀려오기도 했다.

"학생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따라올 수 있을지 가늠이 안 됐습니다. 게다가 온라인 수업이라 막연하기도 했고요. 가장 아쉬운 건 학생들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직접 만나서 소통하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피드백을 받고 다시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아무래도 이메일이나 전화로는 학생들의 생각을 듣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요."

온라인 강의로 인한 수업 준비도 만만찮다. 자료를 준비해서 강의를 녹음하고 편집해서 올리기까지 평소보다 두 배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가끔은 마이크가 잘못돼서 목소리가 안 나오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한다. 익숙하지 않은 작업이지만 시행착오를 겪으며 점차 적응해가고 있다.

지속가능한 교통환경과 녹색물류 연구에 집중

한양대 교통공학과는 1988년 국내 최초로 개설됐다. 그만큼 동문들의 긍지와 자부심은 대단하다. 지난 2012년 물류 기능을 강조하며 현재의 교통·물류공학과로 개편됐다.

이건우 교수가 강의하는 과목은 물류 분야다. 교통과 마찬가지로 물류도 다학제적 성격이 크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관점이 조금 달라지는데 인문에서는 무역학을 기반으로 물류가 확장되고, 공학에서는 산업공학과 교통공학에서 확장된다. 이 교수는 현재 학부에서 '교통물류경제', 대학원에서 '지속가능 교통 및 녹색물류' 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2학기부터는 '물류운영공학', '물류체계설계', '물류특론' 강의가 추가될 예정이다.

그가 운영 중인 '지속가능교통물류연구실'에서는 주로 교통환경과 녹색물류 분야의 연구를 진행한다. 승용차, 트럭, 선박 등 이동수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배출량 추정 연구, 대기 확산 분석 연구, 대기오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공공보건 연구와 함께 교통운영관리기법, 교통물류 친환경 정책에 따른 사회적 편익과 파급효과 등을 연구한다. 또한,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운송수단과 자율주행차 등 교통 및 물류 부문 내 신기술 도입에 맞춰 영향분석연구도 수행 중이다. 이 교수의 말을 빌리면 "국민들은 좋아하고 정부와 담당자, 기업은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연구"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온실가스 저감 등 친환경을 강조하고 있어 이 분야에 관한 관심과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 교수가 그간의 연구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로 꼽는 것은 미국교통학회(TRB)의 5대 학술상 중 교통계획 및 환경 분야에 수여되는 '파이크 존슨 상(Pyke Johnson Award)' 수상이다. 지난 2010년 박사과정이 끝나갈 무렵 자신의 첫 SCI 논문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는 "박사과정을 지도해주신 스티브 리치(Stephen G. Ritchie) 교수님과 학과 교수님들의 탁월한 연구지도, 과제에 참여한 박사과정 동료들의 노력이 함께 이룬 결실"이라고 밝혔다. 파이크 존슨 상은 '가문의 영광'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교통 분야에서는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학술상이다. 당시 공부하던 학과에서도 30여 년 만의 수상으로 큰 화제가 됐다.

후배이자 제자인 ERICA 학생들을 좋은 인성을 갖춘 올바른 전문가로 키워내고 싶습니다. 학업뿐 아니라 사회생활 에티켓과 진로 결정에도 도움을 줄 생각이에요.

기술과 인성 고루 갖춘 올바른 전문가 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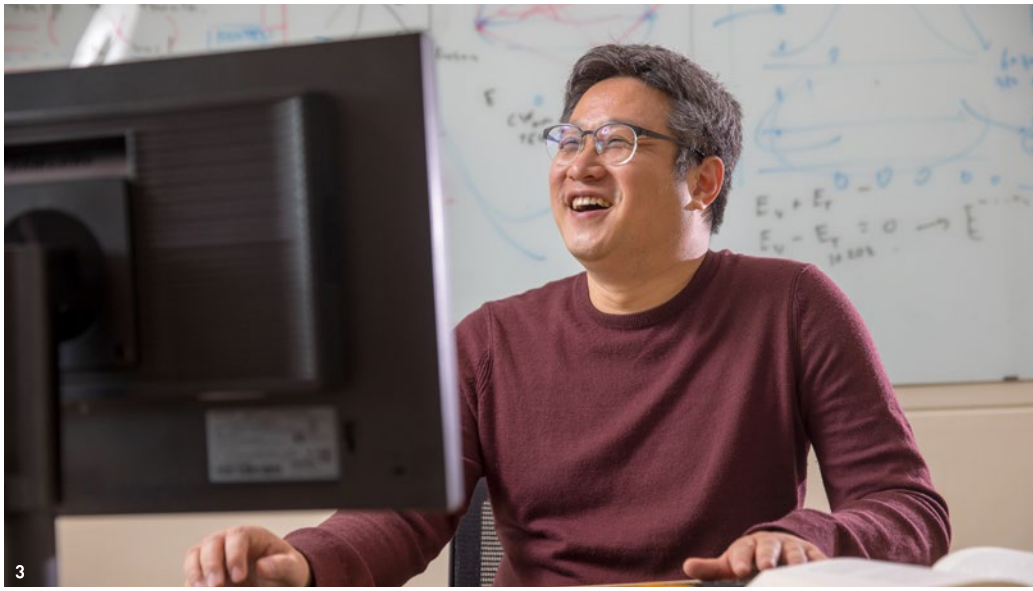
24년 전 그가 입학했을 때와 비교하면 ERICA 캠퍼스의 변화는 실로 엄청나다. 상전벽해(桑田碧海)라는 말이 어울릴 만큼 완전히 바뀌었다. 이 교수는 "캠퍼스 조경도 잘 되어 있고, 새로운 건물도 많이 생겼다"며 "학교의 엄청난 발전이 피부로 느껴질 정도"라며 놀라워했다.

그렇다면 학창 시절을 되돌아봤을 때 가장


1



2



3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 그는 '길카페'를 꼽았다. 모교 교수로 간다는 소식에 동기들이 가장 먼저 꺼낸 말도 다르지 않았다.

"지금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추억이 됐습니다. 당시만 해도 학교 주변이 개발되기 전이라 정문 앞 보도블록에 중간중간 움푹 파인 곳이 많았어요. 거기에 나무를 모아서 불을 때고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그 앞에서 동기, 선배들과 함께 술 마시고 노래하고 토론을 했죠."

그가 겪고, 옆에서 지켜본 한양인의 장점은 성실함이다.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 피하지 않고 헤쳐나가려는 성향이 있다는 것. 그래서인지 세계 각지, 생각지도 못한 분야에서 수많은 동문이 활약하고 있다.

학교 선배이자 교수로서 그가 학생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은 인성이다. 이 교수는 "좋은 인성을 갖춘 올바른 전문가를 키우고 싶다"며 "인품이 좋다는 말을 듣는다면 어디에서도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학생들이 사소한 것들, 예를 들면 예의에 어긋나지 않게 이메일을 작성하는 법과 같이 사회생활에 꼭 필요한 에티켓과 매너를 갖출 수 있도록 돕는다.

"간혹 문자 메시지 보내듯이 누군지 밝히지도 않고 두 줄짜리 이메일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몰라서 그런 것일 텐데 사회에서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예전에는 수업시간에 이메일 에티켓을 예제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 학생들의 이메일이 달라지더군요. 이렇게 소소하지만 중요한 것들을 틈나는 대로 알려주려고 합니다."

진로에 관한 이야기도 자주 나눌 생각이다. 그 역시 학창 시절 교수님들의 말씀이 진로 결정에 큰 도움이 됐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키웠으면 합니다. 학교에 다니는 동안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찾고, 그 꿈을 위해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신임 교수로서 앞으로 교육과 연구에 더욱 충실하겠다며 각오를 다지는 이건우 교수. 틈틈이 교통과 물류 분야에서 전문가 자문이나 의견이 필요할 때 사회에 기여할 기회도 만들 생각이다.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하며 그의 모교에서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한다. HY

1, 2 이건우 교수는 '지속가능교통물류연구실'을 통해 교통환경과 녹색물류 분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3 올해 ERICA에서 새로운 첫발을 내디딘 이건우 교수는 학과 선배이자 스승으로서 남다른 각오를 다졌다.

ERICA 총학생회장 최연소 국회의원이 되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
(생활스포츠학부 10)

청년들의 염원으로 탄생한 20대 젊은 의원

21대 국회에 당당하게 입성한 전용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이제 막 활동을 시작했다. 1991년생인 그는 더불어민주당 역사상 최연소 국회의원이자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최연소 남성 국회의원이다. "당선이 확정됐을 때 실감이 안 났습니다. 막상 국회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니 책임감이 너무나 크고 무겁게 다가왔어요.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으로 3~4년간 일하면서 정치 활동을 시작했는데, 선배들이 지난 10여 년간 2030 국회의원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당선은 그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혹독한 비례대표 경선을 뚫고 6번을 받으며 엄청난 화제를 몰고 왔다. 기적이다, 정당 활동 4년 차의 젊은이에게 누가 표를 준 것이냐며 모두가 놀라워했다. 그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이들은 다름 아닌 전국의 청년 당원들이었다. 80만 선거인단의 1차 경선과 중앙위원 투표에 의한 2차 경선 동안 청년 당원들은 그의

**21대 국회에 입성한 초선의원은 151명이다.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이 큰 만큼
이들에게 거는 기대가 높다.
특히 2030 국회의원에게는
기성 정치와는 다른 변화를 주문한다.
전용기 의원은 이번에 당선된
20대 국회의원 두 명 중 한 명이다.
ERICA 총학생회장에서
21대 국회의원으로 거듭난
그에게 새로운 정치, 청년 정치에 관해 물었다.**

글 오인숙 **사진** 하지권



가장 강력하고 든든한 힘이었다. 그 결과, 국회의원 후보를 비롯해 시장, 도지사 등 단체장으로 구성된 중앙위원 투표에서 당당하게 3등을 차지했다. 청년 당원들의 바람이 빛을 발한 순간이다.

"한 중앙위원께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표를 받았냐며 무척 놀라셨습니다. 사실 그분도 저를 선택하셨지만, 100% 사표로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저를 찍어달라는 청년들의 전화를 여러 번 받으셨다고 해요. 제가 정치 경력이 짧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는 젊은이인지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청년 당원들의 전화가 계속해서 오더래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선택하셨지만, 그런 결과를 예상하지는 못한 거지요."

선거 도중 더불어시민당으로 당적을 바꾸고 순번도 16번으로 밀리는 위기를 겪었지만, 많은 국민의 선택으로 결국 21대 국회에 성공적으로 입성했다. 그의 당선은 2030 국회의원을 만들기 위해 오랜 시간 꾸준히 공을 들인 선배들의 노력, 그리고 자신들과 공감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만들고자 하는 청년들의 염원이 모인 결과물인 셈이다.





1, 2 전용기 의원은 ERICA 총학생회장으로서 학과 통폐합 문제로 반대 여론이 거셌던 '프라임 사업'의 성공적 합의를 이끌어낸 주역이다.

더 넓은 세상! 한양대는 인생의 터닝포인트

생활스포츠학부 10학번인 전용기 동문은 학창 시절,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는 '바른 생활 청년'이었다. 중고등학교 때 볼링선수로 활약했던 그는 체육특기자로 대학에 진학했다. 한양대를 선택한 이유는 공부를 병행하기 위해서였다.

"대학에 들어오면서 스스로와 했던 약속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수업은 빠지지 않겠다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몸이 아파도, 아무리 전날 술을 많이 마셔도 출석은 꼭 했습니다. 수업시간에 잠을 자는 한이 있더라도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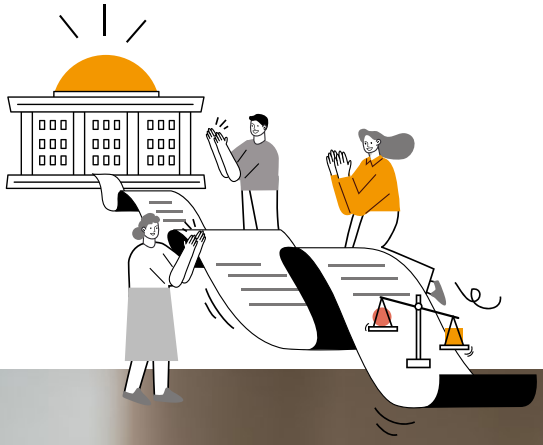
그렇게 성실하게 공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높은 학점을 받았고, 차석으로 졸업할 수 있었다.

학생회 활동은 전역 후 시작했다. 처음부터 학생회 활동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선배의 제안에 공부 핑계를 대며 일주일 동안 도망 다녔다. 하지만 공부와 병행할 수 있다는 말에 더는 핑곗거리를 찾을 수 없어 동참했다.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데다 성격이 급해서 일 처리가 안 되면 못 견디는 타입이라 워커홀릭처럼 일했다. 임원으로 시작한 활동이 어느새 체육과 부회장, 예체능대학 학생회장, ERICA 총학생회장까지 이어졌다.

2016년 제34대 ERICA 총학생회장으로 일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프라임 사업과 축제 문화의 개혁이다. 당시 프라임 사업은 학과 통폐합의 문제로 반대 여론이 거셌다. 그런 만큼 학생들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학생총회를 통해 1,300명의 학생이 직접 투표했고, 찬성률 78.7%라는 결과를 얻었다. 학생들의 목소리를 담은 최고 의결기구를 만들어 대의민주주의를 이뤄낸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당시 ERICA는 유일하게 성공적인 합의를 끌어낸 대학으로, 구성원과의 합의 부문에서 만점을 받고 심사를 통과했다. 30년 동안 민주광장에서 개최하던 축제를 대운동장으로 변경한 것도 파격적인 행보였다.

"민주광장의 규모가 작다 보니 안전사고의 문제가 늘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제 장소를 대운동장으로 변경했습니다. 여러 반대에 부딪혔지만 하나하나 설득해나갔습니다."

축제 첫날 폭우가 내려 임원들과 함께 삽을 들고 대운동장 바닥에 물길을 파낸 일화는 유명하다. 그때부터 축제 때 비가 오면 수로를 파는 것이 전통이 됐다.





"제게 한양대는 인생의 터닝포인트입니다. 대학에 와서 비로소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알게 됐습니다. 각계각층의 친구들과 함께 많은 것을 만들어나갔고,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세상을 접했습니다. 아마 그때 학생회 활동을 하지 않고 사회에 대한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면 정치와는 무관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세대 대표성 띤 청년 정치인의 활약 기대

전용기 의원은 2017년 졸업 후 대학원(경영컨설팅학과 17)에 진학했고,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청년위원회 미래세대공동본부장을 맡으며 정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어 청년정책위원회 연구위원, 전국대학생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이제 막 국회에 입성한 그는 청년 정치, 새로운 정치를 말한다. 이는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이들이 길지 않은 그의 정치 경력을 보고 경험 부족을 우려하지만, 살아온 시대가 다르면 생각도 다르기 마련이다.

"기성세대의 시각만으로 청년 문제를 푸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문제를 풀 때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해야 제대로 풀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대를 대표하는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크게 보면 약자를 대변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지만, 지금 당장은 세대 대표성을 띤 청년 정치인으로서 저희 세대가 직면해 있는 어려운 상황들을 풀어보고 싶습니다."

그는 정치를 '생활'이라고 말한다. 사람을 만나고 서로 다른 사람들을 연결해주고 누군가를 대변하는 생활이 바로 정치라는 것이다.

"정치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를 통해 토론과 설득하는 방법을 배웠으면 합니다. 그렇게 시각을 바꾸면 북유럽처럼 건강한 생활 정치가 정착할 수 있을 거예요."

새내기 국회의원으로서 잘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아직은 모든 것이 조심스럽지만, 때로는 과감하고 개혁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히는 전용기 의원. 그가 바라는 대로 "젊은 친구 시키니까 일 잘한다"는 말을 들으며 약자를 대변하는 청년 정치인으로, 또 후배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도전과 열정의 아이콘으로 한껏 성장하길 기대한다. HY

제1화

ERICA의 나눔 서포터즈를 아시나요?



이 페이지는 '나눔 서포터즈' 학생들이 직접 구성한 기사로 꾸며집니다.



ERICA 대외협력팀 학생 활동단 '나눔 서포터즈' 출범

한양대학교 ERICA의 홍보 및 기부 문화 조성을 이끌어 나갈 서포터즈가 지난 2월, 학교에 둥지를 틀었다. 나눔 서포터즈는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13명의 학생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대외협력팀 소속의 학생 활동단으로서 ERICA 공식 블로그와 SNS(Facebook, Instagram, Naver Band)를 관리한다. 또한, 대외홍보와 기부문화 조성을 목표로 학교와 재학생 및 졸업생, 예비 신입생을 잇는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다양한 업무의 '나눔 서포터즈'가 편성된 이유는?



그동안 ERICA 대외협력팀에는 여러 부류의 학생 조직이 속해 있었다. 조직이 여러 개로 나뉘어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서로 간에 유대감이 부족했다. 또 전공과 관심 분야가 다양한 학생들의 특성을 제대로 살릴 수 없었다.

대외협력팀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업무 영역의 구분 없이 필요에 따라 조직을 분리, 병합할 수 있고 서로 다른 학생들이 친밀감을 바탕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유연한 학생 조직을 구상했다. 홍보, 기부문화 조성 등과 같은 수행 업무 특성을 반영해 '학생들이 ERICA를 나누는 유대감'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대외협력팀이 추구하는 학생 조직의 방향성을 상징하는 '나눔 서포터즈'가 탄생하게 됐다.

지금까지 어떤 성과를 냈을까?

코로나19 사태 진정 이후 학교로 돌아올 학생들을 환영하기 위해 정문과 복지관, 가로등 등 다양한 장소에 걸릴 현수막을 제작했다. 또 포토존으로 거듭날 셔틀콕 스티커와 단과대별 하냥이 캐릭터 등 하냥이 관련 콘텐츠 및 제품의



디자인을 진행했다. 나눔 서포터즈는 지난 4개월 동안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을 펼치며 탄탄하게 초석을 다져가고 있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ERICA는 5년 연속 중앙일보 전국 대학평가 TOP 10 기록,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 선정 등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대내외적으로 홍보해야 할 부분 역시 많아질 것이다. 나눔 서포터즈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해 ERICA 홍보에 앞장서나갈 계획이다.

먼저, 교내 플랫폼의 중심이 될 ERICA 공식 블로그 활성화가 최우선 과제다. 공식 블로그 활성화를 위해 ERICA만의 콘텐츠를 발굴하고 이를 가공해 교내 구성원 및 외부인에게 다양한 소식을 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내년에는 현재 진출한 여러 플랫폼의 전문성을 살려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목표다. 공지사항, 행정안내, 시설 이용 등 학생들에게 학교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정확,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교내 정보를 정리하고 디자인을 개선하는 게 두 번째 과제다. 정보를 보기 쉽게 연결하는 QR코드를 각 건물 및 편의시설에 시트지(스티커)로 부착할 예정이다. 이 QR코드를 통해 학생들의 정보 접근 방식을 개선하고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소액 기부 증진 및 기부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학생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콘텐츠 및 캠페인을 기획할 예정이다.











ERICA 나눔 서포터즈만의 경쟁력은 무엇일까.

나눔 서포터즈의 경쟁력은 '연대'다. 타 학교의 경우 플랫폼의 종류와 업무 성격에 따라 학생 단체를 분리해 관리한다. 그렇기 때문에 캐릭터 활용 등 콘텐츠의 연계가 힘든 단점이 있다. 그러나 나눔 서포터즈는 플랫폼과 업무 간 연대가 쉬운 구조로 학교와 학생들을 연결한다. 이러한 연대를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ERICA만의 귀여운 캐릭터 '하냥이'다.

본관 사자상의 이빨을 가져가면 소원을 성취한다는 속설을 본떠 하냥이는 이빨이 한 개인 상태로 디자인됐다. 학생들이 만들어온 한양대의 이야기를, 다양한 분야의 학생들이 풀어내 하냥이를 완성했고, 이를 다시 학교에서 활용한다는 점에서 뜻깊다. 학생과 학생 간의 연대, 그리고 학생과 학교 간의 연대감을 만들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연대를 통해 나눔 서포터즈는 학생들의 반응이 높은 콘텐츠와 플랫폼 간의 자연스러운 연계를 이끌어가고 있다. HY



바이러스보다 강한 '기부의 힘'

코로나19로 대학가도 예전과 전혀 다른 일상을 보내고 있다. 오프라인 활동이 줄면서 여러 제약도 생겼다. ERICA 공식 홍보대사 '사랑한대' 15기는 모든 활동 일정이 취소됐고, 응원단 '루터스(RHooters)'는 공연과 응원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하지만 이들은 지금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활동을 찾아 기부금 모금과 위생용품 전달이라는 뜻깊은 행보를 이어갔다.

글 오인숙 **사진** 하지권





한양인의 정성 모은 소중한 기부금

사랑한대는 한양대학교 ERICA 공식 홍보대사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15기 대사는 총 9명. 이들은 지난 3월 9일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첫인사를 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확산으로 고교 방문 행사와 캠퍼스투어 등 예정돼 있던 일정이 모두 취소됐다.

변연경(화학분자공학과 19) 학생은 "다양한 활동을 기대한 만큼 아쉬운 마음도 크다"며 "특히 고등학생들에게 ERICA의 아름다운 캠퍼스를 보여주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프라인 활동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다. 그렇게 나온 아이디어가 코로나19로 피해와 혼란을 겪고 있는 국민과 의료진을 위한 기부 활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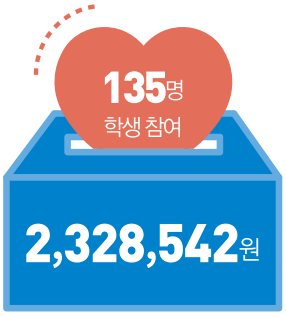
사랑한대 15기 회장 최연정(생명나노공학과 18) 학생은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기부금 모금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오프라인 개강이 연기되면서 재학생들을 직접 만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온라인을 중심으로 홍보 활동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우선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사랑한대 공식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에 모금 활동을 알리는 카드뉴스를 제작해 올렸다. 이와 함께 총학생회와 중앙운영위원회의 도움으로 각 학과, 각 학년의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 기부금 모금을 알렸다. 아울러 홍보대사들의 인맥을 총동원해 동아리, 학회, 지인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모금은 3월 11일부터 18일 자정까지 일주일간 진행됐다. 최소 금액을 없애 기부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졸업생, 대학원생, 교직원의 참여도 독려했다. 또 투명한 재정관리를 위해 매일의 입금명세를 정리해 사랑한대 공식 SNS에 공개했다. 그 결과, 135명의 학생이 모금에 참여해 2,328,542원의 기부금을 마련했다.

기부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처 선정도 공정하고 세심하게 진행했다. 한양 가족의 마음을 모은 소중한 기부금은 '한양대학교 ERICA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이 기부금은 재난 위기 가정에 마스크 등 개인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에게 건강 보조 키트와 의료용품을, 자가격리 이웃에게는 생필품과 식료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됐다.

홍혜민(정보사회미디어학과 19) 학생은 기부금 모금을 마무리하고 전달하던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홍보대사로서 '사랑의 실천'이라는 학교의 건학이념을 실제로 실행했다는 점이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사랑을 실천하며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리라 다짐했습니다."



ERICA 홍보대사 '사랑한대' 15기

사랑한대,
첫 활동은 뜻깊은 사랑의 실천

사랑한대 홍보대사들은 기부금 모금 기간 중 단 한 순간도 긴장을 놓지 못했다. 특히 한양 가족들과 소통할 수 있는 SNS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애썼다. 잠자는 시간을 줄여가며 매일 자정 모금액과 모금 참여 인원을 정리해서 새벽마다 단체 대화방에 공유했다.

최연정 학생은 "모금 현황이 올라오기 전까지 잠을 잘 수 없었지만, 사랑한대가 주체가 되어 재학생과 함께 한양대의 건학이념을 실천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학교를 대표해서 모금을 시작하는 것이 다소 부담이 됐지만, 걱정과는 달리 많은 한양 가족들이 따뜻한 손길로 동참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소소하게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을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번 기부금 모금은 사랑한대 15기 학생들이 정식대사가 되어 진행한 첫 활동이다. 조윤빈(스포츠문화전공 18) 학생은 처음 기부금 모금을 제안했을 때 15기 대사들 모두 흔쾌히 '함께 해보자, 할 수 있다'고 말했던 순간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좋은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대사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든 대사가 기부금 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밤낮없이 일하는 모습을 보며 사랑한대로 활동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앞으로도 주변 사람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잊지 않고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모금 기간에 다양한 문의를 받았다는 김지윤(건설환경공학과 18) 학생은 "모금에 동참해주신 몇몇 한양 가족들께서 '좋은 일을 이끌어줘 감사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기부자들에게 거듭 감사의 말을 전했다.



루터스, 위생용품 전하며 한양인 응원

한양대 응원단 루터스(RHooters)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학우들을 응원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손 소독제 290개를 구매해 서울캠퍼스와 ERICA캠퍼스에 각각 145개씩 전달해 힘을 보탠 것이다.

루터스의 기부 활동은 한양인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시작됐다. ERICA 경영학부 3학년에 재학 중인 루터스 응원단장 이연경 학생은 "루터스는 한양을 알리고 학우들을 응원하는 일이라면 교내외 어디든 달려간다"며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는 한양인을 위해 어떤 응원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교내 손 소독제 기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15명의 단원과 응원단 선배들의 기부에 그동안 모은 공연비를 합쳐 약 160만 원의 기금을 모았다.

"그동안 공연 위주의 응원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기부 활동을 진행하며 서툴고 부족한



한양대 응원단 루터스

손 소독제 290개
서울캠퍼스와
ERICA캠퍼스에
각각 **145개씩** 전달



부분도 많았습니다. 특히 현금 기부가 아닌 현물 기부를 진행했기 때문에 절차도 까다로웠어요. 다행히 서울·ERICA 양 캠퍼스의 관계자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기부 물품은 학생과 교직원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양 캠퍼스의 학생지원팀, 대외협력팀, 관재팀의 도움을 받아 각 단과대와 기숙사 등에 배부됐다.

"온라인 개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교내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학우와 교직원은 물론 오프라인 개강 이후에도 학우들이 좀 더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교내에 비치된 손 소독제를 사용할 때마다 한양인을 응원하는 저희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전해졌으면 합니다."

루터스는 이번 기부 활동을 계기로 지금까지 주로 진행했던 공연 이외에도 한양인을 응원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기획 중이다. 사랑한대 역시 당분간 다양한 온라인 행사와 재미있는 카드뉴스, 영상으로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두 단체의 따뜻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캠퍼스 곳곳에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한 사랑과 희망을 불어넣고 있다. **HY**



ERICA News









1

새로운 변화의 시작, ERICA 산학협력 Fair Day 개최

한양대학교 ERICA에서 '새로운 변화의 시작'을 주제로 한 'ERICA 산학협력 Fair Day'가 개최됐다. 지난 11월 25일, 게스트하우스에서 열린 이 날 행사는 수도권 최초로 지정된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입주를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사업화·기반시설 및 세제혜택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였다. 행사에는 윤화섭 안산시장과 김동규 안산시의장을 비롯해 양성광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양내원 한양대 ERICA 부총장과 안산사이언스밸리(ASV) 입주기관장, 120여 개 기업 관계자 등 총 150여 명이 참여했다.

행사는 1~3부로 나뉘어 채워졌다. 1부에서는 안산 강소특구 업무·협력 MOU 체결과 강소특구 1호 자회사(㈜클린젠) 등록증 수여식, Unpack Talk Show 등이 진행됐다. 2부에서는 안산시 기업지원 설명을 시작으로 한양대 ERICA 산학협력 발전계획,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연구개발특구 사업, 기술보증기금 기업지원사업,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지원사업 설명 등이 이어졌다. 마지막 3부는 기업과 기관 간 1:1 기술상담회 자리로 마련됐다. 한양대 ERICA,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엔포유기술지주, 아주대 등의 우수 기술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연구자에게 기술 상담을 받는 등 기업-대학 간 네트워킹 교류의 장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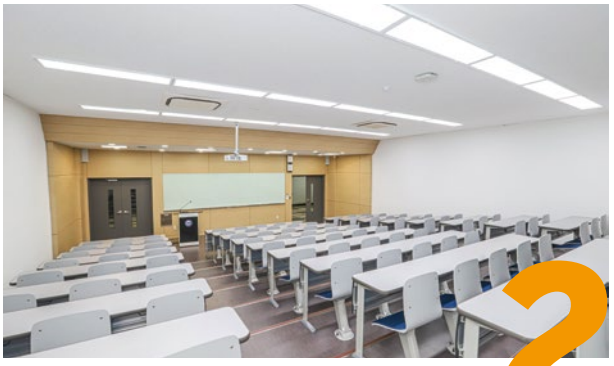
한편, 한양대 ERICA는 2019년에 강소연구개발특구에 이어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 등 굵직한 공모사업에 연속으로 선정된 바 있다.

새롭게 바뀐 컨퍼런스 홀, 리모델링 완공

지난 3월 1일, 한양대학교 ERICA 컨퍼런스 홀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됐다. 본 공사는 2019년 12월부터 약 2개월간 진행돼왔다. 리모델링을 통해 컨퍼런스 홀의 로비와 1·2층 강의실 7개, 4층 중강당 등이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했다.

1층과 2층 강의실 좌석은 기존 885석에서 770석으로, 4층 중강당은 기존 570석에서 527석으로 좌석 수가 줄었다. 그러나 강의실을 넓고 깔끔하게 보강해 더 나은 면학 분위기를 조성했다. 특히 중강당의 경우 빔 프로젝터를 전면 LED로 교체해 기존보다 더욱 선명한 화면을 제공하게 됐다. 에너지 절감에도 기여해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효율성을 높였다. 컨퍼런스 홀에서는 그 이름에 걸맞게, 앞으로 더욱더 많은 행사와 각종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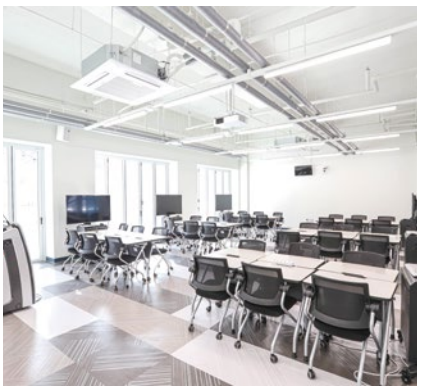
2

Knowledge Bunker, 창업 및 협업 환경 제공

한양대학교 ERICA 제5공학관 지하에 620.01㎡ 면적의 창업공간 'Knowledge Bunker'가 조성됐다. 최근 학생 창업기업 증가로 창업 공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소프트웨어중심 대학사업팀과 함께 기존의 지하 공간을 창업교육 전용공간으로 구축한 것이다. 공간은 크게 Knowledge Bunker 라운지, 창업실, 미팅룸, 해동 부스트업 룸, 캡슐룸, 공동장비실의 6개 구간으로 나뉜다. 창업에 필요한 공간뿐 아니라 휴게실까지 따로 구성돼 있다. Knowledge Bunker는 창업 사무 공간 및 협업 환경을 제공해 학생들이 창업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학생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창업교육도 제공할 예정이다.

창업을 꿈꾸는 ERICA 학생이라면 누구나 Knowledge Bunker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다. 대상은 창업교육센터 및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창업동아리이며,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입주 기간은 학기 단위로 연장되고 최대 2년까지 입주할 수 있다. 추후 창업 실무교육 플랫폼 'ERICA Startup Campus'를 운영하고 SID Audition과 같은 창업교육센터 창업 행사도 개최할 계획이다.

3







양내원 부총장, 꽃선물 릴레이 캠페인 참여

한양대학교 ERICA 양내원 부총장이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원예농가를 살리고자 꽃 소비 촉진을 위한 '꽃선물 릴레이 캠페인(플라워 버킷 챌린지)'에 참여했다. 이번 릴레이 캠페인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졸업식, 입학식 등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되면서 매출이 줄어든 원예농가를 위해 시작됐다. 양내원 부총장은 안산대학교 안규철 총장으로부터 꽃선물 릴레이를 이어받았고, 다음 주자로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인 김운영 원장을 지목했다.

4



㈜비투엘소프트와 창업교육 MOU 체결

지난 5월 11일, 한양대학교 ERICA 창업교육센터와 ㈜비투엘소프트가 창업교육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정보교류 및 인재양성을 위한 역량 협조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창업 분야 활성화 및 혁신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앞으로 양 기관은 △창업 관련 교육 △인적교류 및 지식정보 교환 △우수한 창업자 발굴 및 사업 지원 △기술 및 경영컨설팅 △상호 연구 및 자문 △창업지원 프로그램 공동 운영 등 상호 유기적 연대를 통해 성공창업 지원과 기업가 정신 확산을 위해 협력하게 된다.

5





6



한국기술거래사회와 안산 강소기업 육성 맞손

지난 5월 22일, 한양대학교 ERICA 산학협력단과 한국기술거래사회가 '경기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RICA 산학협력단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경기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에서 안산시가 4차 산업혁명 시대 거점지역으로 도약하게 하는 중심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강점 역량에 대해 연계 협력하며, 지역 기술 수요자 발굴 및 공급자 매칭 등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양 기관은 업무협약에 따라 사업화 촉진 지구 내 기관들과 공동 연구·기술 교류·시험 인증 컨설팅 서비스 등을 제공, 기업의 혁신성장과 신기술 사업화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ERICA 셔틀콕, 하냥이 QR코드 스티커 설치

한양대학교 ERICA 셔틀콕(셔틀버스 정류장)에 하냥이 QR코드 스티커 2개가 설치됐다. 이 QR코드를 읽으면 새롭게 오픈한 ERICA의 공식 블로그로 연결된다. 하냥이 QR코드 스티커는 앞으로 신입생과 재학생이 ERICA 공식 블로그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끄는 도우미 역할을 할 예정이다. ERICA 공식 블로그를 방문하면 학교 소식, 동문 소식, 기부 소식과 더불어 사진 자료실, 캠퍼스 라이프 등 주요 정보를 접할 수 있다.

또한, 하냥이 QR코드 스티커는 한양대 ERICA의 마스코트인 하냥이 캐릭터를 크게 적용해 제작된 만큼 셔틀콕 외관 이미지를 살리고, 나아가 교내 포토존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 ERICA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hyerica4473



7

고양시·KINTEX 관계자, ERICA캠퍼스 방문

지난 2월 12일 이재준 고양시장, 임창열 킨텍스 대표이사 및 관계자들이 강소연구개발특구 및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벤치마킹을 위해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를 방문했다. 방문단은 김우승 총장의 '한양대 혁신사례 소개'를 시작으로 김태현 교수의 '강소연구개발특구 소개', 원호식 교수의 '캠퍼스 혁신파크 소개'를 청취했다. 이후 고양시의 테크노벨리 소개 및 질의응답, 산학협력방안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또 한양대 ERICA의 우수한 인프라를 직접 볼 수 있는 캠퍼스 투어가 진행됐다. 이를 통해 방문단은 학연산클러스터존, 창업을 위한 Knowledge Studio 및 Knowledge Factory, 머시닝기술센터, 스마트제조러닝센터, 케어랩(CARE-Lab) 등을 체험할 수 있었다.







8

연세대, ERICA캠퍼스 벤치마킹 방문

지난 3월 25일, 연세대학교 하연섭 부총장 및 관계자들이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를 방문했다. ERICA의 산학협력 현황 및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 강소연구개발특구, 캠퍼스 혁신파크 벤치마킹을 위해서다. 연세대학교 방문단은 김우승 총장의 '한양대학교 산학협력 현황과 추진 전략 소개', 박태준 한양대 ERICA 산학협력단장의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 및 강소연구개발특구 소개', 원호식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 추진단장의 '캠퍼스혁신파크 소개' 내용을 청취했다. 이후 산학협력 관련 시설을 탐방하며 ERICA캠퍼스의 우수성을 확인했다.

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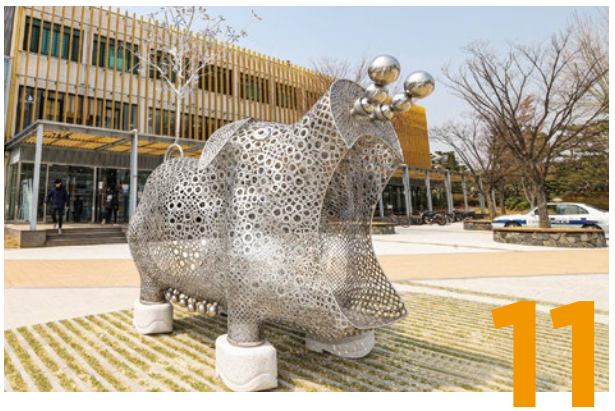
김영자 화백, ERICA 학술정보관에 그림 <꿈> 기증

지난 2월 6일, 김영자 화백이 한양대학교 ERICA에 직접 그린 그림 작품 <꿈>을 기증했다. 김영자 화백은 한국여류화가회 및 홍익여성화가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개인전만 50회에 이르는 작가다. 현재 한국미술협회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영자 화백은 ERICA 재학생들의 꿈을 응원하고자 해당 작품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김영자 화백의 그림 <꿈>은 현재 ERICA 학술정보관 1층에 전시돼 있다.

민주광장에 '행운의 돼지' 조각상 설치

지난 4월 7일, ERICA 민주광장에 새로운 조각상이 설치됐다. 작품명은 '행운의 돼지(Pig of fortune)'로 ERICA 개교 40주년을 기념하여 양태근 교수(중앙대학교 조소과)가 기증한 것이다. 이 작품은 2016년 서호주 퍼스 코트슬로 비치에서 개최된 '제12회 퍼스 해변조각전' 출품작(Sculpture by the Sea)이기도 하다. 양태근 교수는 이 작품이 "시각적으로 즐거움을 주고 작품 속으로 직접 들어가 체험함으로써 작품의 의미를 알아가는 소통의 장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1

Beyond ERICA

ERICA, 대한민국 산학협력의 생태계를 선도하다!

드디어 ERICA 3.0 시대가 열립니다!
배움터, 삶터, 일터가 공존하는 캠퍼스 혁신파크로
ERICA 속에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가 구축됩니다.

ERICA는 오직 ERICA만이 넘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학연산 클러스터 캠퍼스
- 국내 최우수 산학협력 선도대학
- LINC사업 4년 연속 최우수

2024년 (신안산선)
한양대 ERICA역 개통
(여의도까지 25분)

산학협력 인프라의 완성
- 수도권 유일의 **캠퍼스혁신파크 사업** 선정
- 수도권 R&D의 중추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 기업과 대학이 공존하는 **산학연협력단지** 조성
- AI인재를 양성하는 **AI융합연구센터** 설립

중앙일보 전국 대학평가 5년 연속 Top 10
(2015년~2019년)
- 교수 확보율 1위
- 창업교육 비율 1위
- 현장실습 참여학생 비율 1위

한양대학교 ERICA
Education Research Industry Cluster @ Ansan



걸음마다 혁신

ERICA

중앙일보 전국 대학평가 5년 연속 Top 10 (2015년~2019년)

교육의 혁신

- 기업 연계 문제해결 방식 IC-PBL
- AI전문인력 양성, AI 융합연구센터 설립
- 홀로그램을 이용한 원격 수업 Telepresence

산학협력의 혁신

-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LINC+
- 수도권 R&D의 중추 강소연구개발특구
- 대학과 기업이 참여하는 기술 멤버십 ICC/IUCC

인프라의 혁신

- 배움터, 삶터, 일터가 공존하는 캠퍼스혁신파크 착공 (2020년)
- 여의도까지 25분! 신안산선 개통 (2024년)